



통권 107 호

#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0. 9. 18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우리 다시 꼬옥 만나요”

송학 비전향 장기수 환송의 밤

“우리 다시 꼬옥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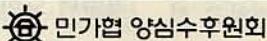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길었다.  
그리하여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3, 40년 감옥문이 열렸다. 보랏빛 수건을 드른 어머니들의 온몸 다한 싸움과 후원회원들과  
모든 양심세력들이 함께 싸운 결과로 겹겹이 둘러쳐진 분단의 창살 넘어 사람세상으로 돌아온 선생님들.  
그리고 9월 2일, 통일의 희망과 꿈을 안고, 자식같고 친구같은 후원인들과  
오랜동지 민가협 어머니들의 사랑과 믿음 굳게 안고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북녘 고향땅으로 가신 선생님들.  
우리의 희망만들기는 이제 또 시작이다. 열리지 않았던 45년 감옥문이 열리었듯,  
굳게 닫혔던 분단선도 이제 열리고 있듯, 선생님들과 다시 만날 그날도 곧 열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  
머잖아 뜨겁게 다시 만날 그날을 굳게 믿는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꼬옥 다시 만나요!! (관련기사 14~25쪽)

8월 19~20일, 어름수련회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송학 환송의 밤.  
사진 / 이재천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el. 02-763-2606, 765-5282 Fax. 745-5604

## 9.2 비전향장기수 송환의미와 남은 과제들

**비전향장기수 63명이** 9.2일 남과 북에서 환송과 환영을 받으며 판문점을 거쳐 북녘으로 돌아갔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금강산 적십자회담으로 원칙합의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8.15이산가족상봉과 함께 한편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실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큰 물길로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보는 이들의 시각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민족에게 지워진 외세와 분단이란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잉태되고 존재했던 비극성과 함께 필연성을 갖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와 위상과 명칭은 6.15공동선언 항목에 당당히 들어 있을 정도로 민족문제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 남북이 함께 인식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남북당국의 갑작스런 합의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잔혹한 고문 만행 등 강제전향 공작의 엄혹한 조건에서도 자주통일에 대한 염원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양심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본의아니게 의지를 꺾이는 처절한 싸움이었지만 그 어떤 조건에서도 불의와 타협할 수 없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했으며 조국통일 염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기한없는 오랜 시간을 밀폐된 공간에서도 굳건히 맞설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언제까지나 가려질 수는 없었다. 그들의 외침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의 상식의 눈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는 정의시각으로 양심세력에 의해 받아안게 되었다.

그들의 의지를 받침하는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역할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양심수후원회는 1989년 3월 창립총회에서 이들을 처음으로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

방과 후원활동에 들어갔으며 1992년 제4차 정기총회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였다. 1993년엔 '이인모 노인 송환추진위원회' 와 함께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만드는데 주도하면서 다른 인권·종교단체와 함께 전쟁포로 원적지 송환운동을 펴왔다. 그리하여 1993.3.7일엔 전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은 북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인모 노인처럼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국제법상 권리와 휴전협정 등을 들어 원적지 송환을 주장해온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의 송환은 김영삼 정권의 대북대결 정책으로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은 1999년 2월25일 우용각 노인등 비전향장기수 19명이 협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부터이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등 27개 인권·종교·사회단체가 다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통일부장관을 면담,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하고 토론회, 거리캠페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각계로부터 폭넓은 지지성원도 잇달았다. 또한 상호주의니 조건부 송환이니 하는 일부 주장을 설득, 이해시키며 마침내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를 이루게 하기까지 강연회, 기고문, 기자회견, 방송 출연, 인터뷰를 통해 조건없는 송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바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정신으로 인권과 국제법상 권리로 그리고 반목·대결에서 화해·협력시대로, 자주·통일시대를 여는 좋은 계기임을 주장했다. 송환추진위는 결성과 함께 송환희망자 조사사업을 하여 모두 65명의 명단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희망자 전원 송환과 함께 신인영 노인의 93세된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일, 이경구 노인 등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6명이 부인과 함께 가는 문제를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마침내는 65명 송환희망자 가운데 정순택·정순덕 노인이 '비전향자가 아님'을 이유로 제외된 채

63명만이 돌아갈 수 있었으며 함께 갈 것을 요청해 왔던 가족동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송환의 최종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송환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반드시 해내야할 몇가지 송환 관련 과제를 받아안게 되었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계속사업 과제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9.2송환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그와 관련하여 풀려난 102명 가운데 아직도 생사여부나 거소지를 알 수 없는 이학근 노인등 7명이 남아있다.(1993년 이인모 노인 1명 송환, 김병인 노인 등 13명 사망, 9.2일 60명 송환-3명은 사회안전법 제정 이전에 비전향으로 출소함, 박봉현 노인등 남쪽에 남아 있는 21명 등 95명을 제외함) 또한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비전향으로 출소한 사람 가운데 감호처분 등을 피해왔던 송환희망자들이 있다. 이들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송환추진위원회는 이미 법무부와 통일부에 위에서 말한 이학근 노인등 7명과 함께 이들의 명단과 거소지 확인을 위한 행정자료공개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해 놓은바 있다. 9.2일 송환이후에 이미 송환신청을 해 놓은 분도 있다.

**둘째**, 9.2 송환에서 제외된 정순택·정순덕 노인을 비롯한 엄혹한 시대 본의아니게 강제 전향당한 사람들 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이들의 송환운동이다. 그것은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도가 위헌성 때문에 이미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독재시대 강압에 의한 전향 자체가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사상전향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체계와 사물에 대한 가치체계 등 바로 세계관의 전환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개인행동 등 실천규범까지 뒤따를 때만이 유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상전향

은 외적강제가 아니라 내심에 의한, 인간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유효하다 할 것이다. 정순택·정순덕 노인은 사상전향 취소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비전향장기수들과 오랫동안 공동체 성원으로 살아오면서 전향자체가 양심에 반하고 강제로 이루어 졌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두 분처럼 적극 적이긴 아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와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저서 또는 인터뷰등을 통해서 강제전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특히 송환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송환은 인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9.2송환으로 남쪽에 남겨진 가족들의 재결합 문제이다. 송환추진위에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에서 인도주의 정신으로 93세된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하고 부부가 갈라지는 비극이 없도록 직계가족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요청한 바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1차적 의미는 그들이 수십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향해 왔던 세계로 가는 일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가 함께 하는 문제는 인도주의일 뿐 아니라 인륜의 문제이다. 이들의 재결합 운동은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의 연장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같은 송환운동은 궁극적으로 외세와 분단구조를 깨고 자주와 통일세상을 이루려는 6.15공동선언의 이행문제이며 통일 이전에라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남북으로 흐트러져 있는 모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면서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이 송환운동은 계속되어야하고 당국은 반드시 이 좋은 민족적 과제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권오현·양심수후원회 회장

## 평생에 칸트전집을 쓰는 것이 소원인 남편을 서재로 보내주십시오

— 한단석 교수님 부인 강경애 님



비가 내리는 탑골  
공원 앞, 목요일 2시.

행인들은 일상의 걸음을  
재촉하고, 비는 가을을 재  
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정지된  
시간처럼 목요집회는 계속  
되고 있었다.

93년부터 오늘처럼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목요집회. 7년 넘도록 목요일 2시가 되면 탑골공원 앞을 끈질기게 지켜온 어머니들은 이제, 중년을 훌쩍 넘어 머리에는 어느덧 흰서리가 내려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참 고운 강경애님을 만났다.

“하도 울어 싸서 눈이 이렇게 부서(부어) 버렸당께. 날마다 울면서 다닝께. 한평생을 순수허니 책하고 공부밖에 몰르고 산 양반인디, 이런 혐한 꼴을 당한다 생각하면 마냥 눈물이 난당께.”

작은 꽃무늬가 가득한 미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 입은 강경애님(72세)은 말문을 열면서부터 눈물바람을 일으킨다.

한단석 교수(전북대 철학과)가 구속된 것은 지난 1월 25일이다.

노부부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한가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한교수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체구가 이만씩한 청년들 열댓명이 갑자기 집안으로 마약 쏟아져 들어오드만요. 나는 처음엔 무슨 강도들인지 알고 못 들어오게 했지요. 그때서야 구인장을 제시하고 들어와서는 8시부터 11시까지 온 집안을 뒤지고 다니더 라구요.”

그들은 책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료

들까지를 다 뺏어갔다. 전호번호부, 통장, 주민등록증까지. 그러나 형사들은 그것도 모자라 전에 살던 집에 가보자는 것이었다. 밤도 늦은데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생각도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며 베티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 길로 한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소지.

한평생 학자의 성실함으로 책만을 파고, 남에게 모진 말 한번 없이 공부하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로 살아온 노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50여년전. 한단석 교수가 군산중학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한교수는 9남매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조실부모하여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으나 그 집안은 동네에 수재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군산중학의 입학도 수월한 일은 아니었다. 당시 군산중학엔 100명의 학생중 조선인은 다섯 명 뿐이었다. 그 중 한단석님은 공부를 잘하고 뱃심이 있어 교내에서도 알아주는 학생이었다. 한 번은 일본 학생과 싸움이 붙은 일이 있었다. 그 후 교장실로 청소를 하러 가자 일본인 교장은 한단석님을 불러 놓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 ‘조선은 백제라는 궁지를 가진 나라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군산중학에서 한단석님은 한 분의 은사를 만났다. 전주사범 1회 졸업생으로 젊은 패기에 넘치던 음악 선생, 최동욱님.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20여년 전인 70년대.

당시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있던 한단석님은 좀 더 심도깊은 학문연구를 위해 일본 동경대로 유학을 떠났다. 학문에 대한 욕심이 앞서 자비(自費)로 간 유학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철학에 대한 연구가 몇십년을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곳에서 한단석님은 다시 군산중학 스승인 최동욱님을 만났다.

한국에는 아내와 고물고물한 자식들을 남겨두고 자비로 온 유학이니 그 생활의 곤경함은 미루어 알만하다. 한단석님은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하숙집을 얻어 학교와 하숙집만을 오가며 고독하나 단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생활 중 우연히 옛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은 그렇게 유학을 온 제자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스승은 자전거로 직접 작은 냉장고를 실어다 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마치 가까운 친형제처럼 지냈다. 당시 한단석님에게 최동욱님은 이념을 떠나 같은 동향사람으로 예술과 삶을 얘기할 수 있는 벗이요, 안식처였을 것이다.

최동욱님은 당시 플루우트를 전공한 아내를 만나, 그 자식들도 모두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음악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한단석님은 그후 동경대 철학과 교수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2년 반만에 철학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했다.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비행장까지 마중을 온 최동욱님으로부터 한단석님은 봉투를 하나 건네 받았다. 경황없이 서둘러 비행기에 올라 봉투를 열어보니 주체사상에 관한 책자였다.

**칸트를 전공하는** 한단석님에게 주체사상은 거리가 먼 사상체계였고, 무심히 그 봉투를 서재 안쪽에 밀어두고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채.

그러나 78년 당시 서울대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그 일이 문제가 되었다. 어느 철학과 교수라며 만나자고 해 나가보니 보안사 직원이 나와 있었고, 14일간 집에는 아무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으나 결국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동욱님은 90년부터 뇌경색으로 인해 식물인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사진/김민정

8월 31일, 344회 목요집회에서 손수 쓰신 석방호소문을 읽고 계신 강정애님.

이제 퇴직을 했으니 자유롭다고 생각한 한단석님은 가끔씩 전화를 해 옛 은사님의 안부를 묻곤 했다. 중학 시절엔 그리 젊고 패기 넘치던 은사였고, 한단석님의 일본 유학시절엔 기품넘치는 음악인이요, 친혈육처럼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던 스승의 말년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퇴직 후에도 일본에서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칸트 철학학회'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학문적 성과를 들으며 토론하는 것을 제 일의 기쁨으로 여기던 한단석님은 그렇게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가는 길에 한 번씩 병실을 찾기도 했다. 한국에서 아내가 담아준 식혜를 가져다 주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며 덩달아 흐뭇해하던 그런 '순 인간적으로' 사귐 사이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회합통신이고 이적 표현물 소지인 것이다.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 병석에 누워있는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과 학문으로 평생을 살아온 일흔 셋의 노인이 무슨 국가 보안에 문제가 되는 회합통신을 한단 말인가.

한단석 교수의 구속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주변사람들이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프린트 한 장, 책 한 권 준 적이 없는데, 단지 건네받은 문건을 본의아니게 지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냐며, 억울해서 이틀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통곡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하루 사이에 흔쾌히 탄원서를 써준 사람만도 100명이 넘었다.

어디 그 뿐인가.

올해는 한단석님이 칸트학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일본 칸트철학학회 회원들은 우리들이 도울 일이 없냐며 일일이 한사람씩 탄원서를 각자가 써서 보냈다. 또한 그 탄원서들이 검찰에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시 한글로 번역해 보내는 정성을 보였으며, 그것도 부족해 그들이 도움이 된다면 직접 한국에 오겠다는 뜻을 전하기까지 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성의를 보면서 그 양반한테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한이 없고, 잘 살은 인생이요.’ 하고요. 또 내가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최동욱 선생 부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현재 최동욱 선생의 현재상황을 알 수 있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요.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런데 그 부인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아주 성의껏 진단서와 1급 장애자증도 보내줬어요. 동경에서는 뇌경색을 1급장애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1심에서 그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공증이 없다는 이유였다.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 쪽에서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어렵사리 공증을 받아 보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

강경애님은 40년 살던 고향인 전주를 등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체포된 후 48시간내에 풀어준다는 수사관들의 말만 믿고 ‘전주에 먼저 내려 가지 마소. 내가 저녁이면 나갈테니 그때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던, 학문만 알았지 세상을 모르는 ‘깜깜한 양반’의 옥바라지를 위해서다.

“처음 서울 올라와 며칠을 울었당께. 너무 허전해서. 그렇지만 내가 이사오기를 잘했지, 그 사람 뒷바라지를 누가 할 것이여. 96년도에 위암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5년만 잘 지내시면 된다고 했는디, 그것 땜에 더 걱정이지. 15년 전엔 망막이 터져 수술을 해 눈 한쪽으로 살아온 사람인디, 지금도 구치소에서 책을 보니 내가 그렇게 책을 보지 마소라고 해도 어디 그 양반 고집을 꺽을 수 있간디. 평생에 칸트 전집을 쓰고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라 집에서도 등산하는 1시간 빼고는 서재에만 앉았는 사람인디. 의지가 겁나게 강한 사람인께 그(감옥)생활하는겨.”

노부부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3심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감옥을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며 살아온 칸트 학계의 일인자인 남편의 일생에 오점이 생기는 것이 가슴아프고, 후에라도 자손들에게 순수하고 정열적이었던 학자로 남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전 욕봤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고, 생일날 한 번 쟁겨준 적도 없는 양반인디도,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날마다 눈물을 쏟는다냐 하고 딸한테 호소했더니, 딸은 ‘엄마, 그게 부부야’라고 합디다.”

아름다운 노부부.

남편의 구속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루도 면 회를 거르지 않는 부인과 그 부인앞에서는 아무말 없다가 도 혼자 세상에 남은 그이가 안스러워 면회를 온 자식들에겐 ‘없는 집안으로 시집을 와 고생 많이 한 사람이나 너희들이 특히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탁을 잊지 않는 속깊은 남편.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를 이제야 얼핏 알 것 같다.

고현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한단석 교수님은 99년 1월25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친양 고무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1년2개월 형을 받고 항소중입니다. 고령과 위암 수술 직후에 구속된 경위를 들어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9월4일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재판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민기협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활동으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 8·15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새 천년 맞아 처음 이뤄지는 광복 55주년 사면이 “민족대화합”을 위하고, “참된 민주발전 발전”을 위한 것이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어이없기 짹이 없다. 이는 명백한 사법권의 훼손이다. 그것은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의 대표적 인물인 김현철, 홍인길을 사면하고, 15대 총선사범과 IMF경제사범을 사면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광복절 사면은 김현철을 비롯한 비리인사 사면을 위해 일부 양심수들을 “들려리”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듦다. 사실상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21명에 불과한 미흡한 조치이다.(8월 현재 125명)

특히 김현철을 형선고 실효로 특별사면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의 훼손이다.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을 이용하여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이다. 그러나 2년형을 선고받고도 형기의 4분의 1 가량만 복역하고 작년 8.15특사에서 잔형면제로 사면되었다. 잔형면제 사면으로 이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를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형선고 실효로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선고 실효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왜 형선고 실효를 하는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놓단, 거액의 불법자금을 챙기고, 조세까지 포탈한 범죄사실 자체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결국 김현철이 17대 총선에 출마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인가.(중략)

### 8·15에 풀려난 양심수 명단(형집행정지)

강현기(전철연·권선4지구 철거반대) 김호(명지대·서총련 투쟁국장97) 김선우(경북대·한총련불탈퇴(7기)) 나호영(부산대·한총련 정책위원장97) 방석수(민주노총 울산본부·영남위원회 사건) 석치순(서울지하철노조·파업) 윤종세(전 대전충남연합·일본관련 사건) 이상진(유학생비엔나·방북 사건) 이석주(고려대(서창)·한총련불탈퇴(6기)) 이승철(전남대·이종권씨 사건) 이정훈(대진호 선원·월북기도 사건) 이준구(건국대·한총련 조통위원장97) 전양배(충남대·한총련불탈퇴(6기)) 정수일(단국대 교수·간수 사건) 정태홍(고려대·한총련 의장(3기)) 최인기(전노련 연사국장·민중대회) 황선(덕성여대·한총련 방북사건) 홍규범(군인·효성기톨릭대(휴학)·이적표현물 사건)

### 감형자 명단(잔형의 1/2)

강위원회(전남대·한총련 의장(5기)) 김춘수(한양대(휴학)·반미구국한양 사건) 박원하(부산경성대·이적표현물 소지) 서원철(범민련·방북(10차 범대회) 오봉석(강원대·한총련불탈퇴(7기)) 정명기(전남대·한총련 의장(4기)) 정의찬(조선대·남총련 의장(97) 정형기(연세대/원주·강총련 간부) 최진수(범민련 98 사무처장·범민련 사건)

이번 사면조치로 풀려날 양심수는 21명에 불과하다. 특히 정명기, 강위원회 등 전 한총련 의장들이 감형조치로 끝나 이번에도 석방되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 형기의 62%를 복역하고도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풀려나는 양심수들은 ‘형집행정지’라는 사실상 사면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에 불과한데 김현철에 대해선 형선고실효를 하는 참으로 이상한 사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도 암환자 한단석(전북대 교수, 72세), 간경화 말기인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고혈압과 위장병 등 합병증을 앓는 나창순(범민련 고문) 등 감옥생활이 불가능한 중환자인 양심수들은 고스란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5백여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임에 틀림없다. 비리부패인사·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의도에서 고려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사면권의 남용이다. 양심수를 비리정치인을 사면하면서 국민적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들려리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한다.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인사에 대한 사면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차제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후략)

2000. 8. 14.

민주화실천기독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林基蘭)

## 이 경이로운 민족 대화해의 시대에 누가 내 어머니를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께.

많이 우셨지요?

혹시라도 막내아들 탓할까봐 형과 형수 눈을 피해 이 불에 머리를 묻고 서럽게 소리없는 울음을 토해 내셨을 안쓰러운 내 어머니… 너무도 죄송합니다.

무슨말로 도대체 어떤 설명으로도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의 수뇌가 만나고 50년 이산의 철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혔던 철길이 뚫리는 세계사적 격변과 전민족적 대화해가 진행되는 이 경이로운 시절에 도대체 누가, 왜 내 어머니를 이토록 지치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혹여 식사조차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끝내 자리에 누우시진 않으셨는지… 저도 잠시 황당하긴 했지만 충격이나 허탈함보다도 더 급한 건 노령의 어머님 걱정이었지요.

솔직히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철옹성의 감옥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사색과 명상의 시간으로 삼기엔 3년 넘는 육살이는 지나친 한가였습니다. 열혈청춘, 청년운동가에게 한평 독방은 가혹한 밀실이고 동굴이었습니다.

칠십중반 넘겨가는 노구의 어머님의 삶을 제가 더 이상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아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보법이 사문화되고 민족통일의 시간표가 제시되고 있는 시대에 자랑스런 현장 복귀를 갈망했습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핵심주장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이 민족적 합의가 되기는 마땅에 황폐한 감옥에 수인으로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55주년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

도의 이산 상봉 민족경사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좁디좁은 동굴안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오늘 다시 어머니와 저는 지난 3년 1130일 육살이 이상으로 의연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단행된 여러번의 사면마다 어머니는 젊은 엄마들 누구보다 거뜬하고 당당하게 견뎌내셨습니다. “애국하다 거리에서 죽은 학생들도 있고, 3, 40년을 무기수로 살아온 할아버지들도 계신데 어찌 5년짜리 징역같고 눈물, 한숨 보이겠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어머님, 이번에야말로 더 꿋꿋한 태도로 미석방 양심 수 부모님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부터 사면을 해결하지도 정역살 이를 슬퍼하지도 말아야 해요. 여하튼 오늘 사면이 우리 가족에게 준 아픔을 얼른 털어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 6·15공동선언과 민족자주, 대단결에 보다 과감하게 기여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족 전체가 고민하고 찾아가는 긍정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새로운 각오로 멋지게 품위있게 폼나게 맑고 푸르게 그리고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어머님만 견디고 버텨주시면, 어머님만 변함 없이 아들의 지지자, 후원자가 돼 주시면 저는 감옥일망정 몸과 맘 모두 쑥쑥 커갈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형제이자 정치적 동지가 된 정원형의 맹목에 가까운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면회 때까지 밝게 사세요. 예쁘게 사세요. 힘내세요.

경주옥에서 막내아들 위원 올림  
장위원

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제5기 한총련의장 · 경주교도소 수감중

# 몸은 가지만 마음은 두고 갑니다

대전 형제의 집 최수일 선생님

평안북도 의주군 가산면 방산리가 고향이에요. 신의주 있는데, 1939년 5월 25일에 태어났지. 아버지는 최기보, 어머니는 김홍옥. 위로 누나가 세 분 있고, 형님 있고 내가 막내. 2남 3녀지.

아버지 형제가 7남매여서 조카들이 굉장히 많고, 사촌만 해도 한 삼십명 되지. 농사쳤는데 밭농사가 더 많아요. 한 오천평 됐는데 옥수수랑 조 심고, 논도 좀 있고. 반찬은 농촌에서 하는 거, 김치하고, 산나물. 거기는 산이 많아서 고사리랑 많아요. 누나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산나물이 떨어지지 않지. 그리고 헛간에는 항상 과일이 떨어지지 않아, 가을엔. 사과도 되고 배도 되고, 산에는 머루, 다래, 개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있는 텐 너무나 산골이 돼서, 사방이 산이라 해서 방산리라고 했대. 압록강이 보이는데 그 뒤는 다 산이니까. 그러니 내가 산 타는 데야 선수지. 지금도 산타는 텐 20대도 나한테 안 돼. 지금 내가 일을 같이하는 분들하고 산을 가게 되면 내가 계속 끌어주는 걸?

거기서 계속 자란 거여. 방산인민학교 다니고. 누나들은 학교 못 다녔어요. 옛날에야 뭐 여자들은 집에서 목화 있잖소이? 목화 키워 가지고 심어서 그걸로 순전히 베 짜고, 옛날에 뭐 기계로 했간? 다 손으로 어머니랑 누나들이 했지. 45년 해방 되던 해 일곱 살 때 1학년 다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나같은 꼬마들도 우리말을 못하게 하는 거여. 근데 요런 팻말이 있었어. 조선말을 하면 그걸 갖다 걸어주는 거여.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조선말 하게 되면 자기꺼 벗겨서 걸어 주고. 마지막에 그거 걸고 있는 사람이 별로 청소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면서기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우리말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말 하니까 자기가 걸고 있다가 그걸 벗겨서 나한테 넘긴 거지. 그래서 내가 뚜드려쨌거든. 여태 까지 내가 그 때 딱 한번 사람을 두드려 쫓어. 동무 뚜들겨 꿔다고 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하는데 나 혼자



대전 형제의 집에서 최선숙선생님과 함께 한 최수일 선생님(왼쪽)

책상을 들고서 밖에서 한 시간 동안 수업 끝날 때까지. 싸움이라곤 그 때 한 번 밖에 해 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해방 됐을 때? 조선 독립 만세지! 일본놈들은 그 때 달아나면서 마적들이 중국에서 온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 거 아는 사람들은 해방됐다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랬지. 해방되고 뭐 엄청난 변화가 왔지요. 왜냐하면요, 주들이 가지고 있던 밭 있잖아요? 그거 무상 분배해서 다 나눠 주고 그러니 얼마나 기뻐들하겠어요. 지주들이 농사진 거 중에 절반도 더 빼앗아 갔었는데 해방되고 나서는 삼칠제거든요. 농사진 사람이 칠을 갖게 되니 좋지요.

'고향' 하면 압록강하고 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압록강 가 모래판에서 씨름도 하고 그랬으니까. 마을에서 천미터 정도 떨어져서 압록강이 흘렀어요. 우리 집은 산 위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압록강이 책 보인다구. 폭이 500미터쯤 돼. 아침에 압록강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뛰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에 붉게 물든다구. 나물 뜯으러 많이 갔지. 누나들이 다리고(데리고) 가니까, 꼬마라고. (웃음) 그 담엔 압록강에서 공 가지고 많이 놀고. 새까만 공으로 야구하는 흉내도 내고, 축구도 하고. 축구공은 사기가 힘드니까 벗짚, 형겼 이런 거 뭉쳐 가지고 한다구. 씨름도 많이 하지. 씨름, 내가 잘허거든. 작지만 큰사람도 내가 냉기고(넘기고). 지금도 한 팔십키로 나가는 사람도 나한테 딱딱 떨어진다구. 발 힘이 쎄.

압록강 건너가면 중국이야. 거기서 게 같은 거 잡아서 중국 애들 주고 돌아와. 중국 애들하고 중국말로 얘기하지. 늘 가까이서 들으니까 '짜이찌엔' 하게 되면 '다시 만납시다', '니 하오' 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쪼금씩 조금씩 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쪽 압록강 가에서 말하게 되면 저기 (건너편) 가에서 (중국)학생들이 또 말한다고. 큰소리

로 말하면 다 들려. 계는 왜 쳤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돌아올래면 수영하는 데 지장이 되거든. 그리고 그거 주게 되면 그 중국 학생들이 상당히 기뻐해. 그게 한 열두, 열세 살 때야. 지금도 압록강은 맑을 거야. 그 땐 압록강 물 수영하면서 막 마시고 그랬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요, 한 번도 내가 나가 노는 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면, 그렇게 뛰어놀아야 건강하다고. 이제 누나들은 나더러 공부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나중에 화학기술학교 가서는 1등했지. 우리 집에서 한 십리 됐지. 옥강중학교를 걸어서 다녔어. 한 사오십 분 걸렸어요. 가방은 책보. 여자 남자 같이 다녔는데 나는 사춘기니 뭐니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 누가 예쁘대는 건 알지. 박옥자라고 예쁜 애는 있었어.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박옥자라는 분은 사범대학 나와 가지고 어디 교원으로 있다구 그러드라구.

공부는 한 반 52명 중에서 중간 정도 했어, 항상. 한 번도 책보를 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가서 늦게까지 놀고 개구쟁이같이. 어머니가 밥해 놓고 부르게 되면 이제 저녁에 으슬으슬할 때야. 그때 겨우 집으로 돌아오고. 3년 내내 그렇게. 국어, 수학, 물리, 역사, 지리, 고대사, 문법, 로어(러시아어) 공부하고. 영어는 안 했어. 나는 수학하고 물리 이런 거 좋아했어.

소풍은 주위에 산들이 많으니까 산으로 가고. 도시락은 어머님이 특별히 닭도 잡아주고, 밥, 떡도 해 주고. 왜냐면 내가 이제 어디 간다 하면 꼭 많이 해 줘요, 한 삼사인분. 주위에 쪼꼼 어렵게 사는 사람 있어. 자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우는데. 그 학생한테 내가 점심을 가져가서 같이 노나 먹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어머니가 항상 염두에 두지. 우리는 생활이 풍부했어, 해방 전에는 좀 쪼들렸지만 그 후에는.

**1950년도면 내가 열한 살, 열두 살 때지. 중학교 1학년 때.** 마을이 형편없이 많이 폭격을 당했는데 큰 집은 거의 다 폭격당했다고. 학교도 교회도 폭격당하고. 학교가 폭격당하니까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큰 집이 있다고. 이제 땅을 다 몰수하니까 그 지주들 아마도 몰래 여기로 (남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집이 남아 있었거든. 그 빈 집에 가서 공부들 한 거여, 학교가 폭격 당하고 없으니까. 폭격할 때 농사 짓는, 밭갈이하는 소 있잖소? 그

소까지 폭격당했는데 뭐.

정전되고 복구할 때는 전 국민이 동원됐어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기네 학교 기숙사 복구하는 일 같이 하고. 질통 계속 지고 나가고. 그 땐요, 공화국 전 지역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했어요. 평양도 이따금씩 갔다왔다 하면서 보게 되면 큰 집이란 건 거의 없어요. 미군이 사십만 방언가 되는 폭탄을 갖다 부었어요, 평양에만. 그 때 평양 인구가 사십 만이었대요. 그러니 한 사람에 한 방씩 큰 폭탄을 안긴 거지요. 그리고 신의주는 소이탄 있잖아요, 밤에 와서 휘발유 뿌리고 소이탄을 삼사일 계속 들이부었어요. 사람 많이 죽었죠, 거기서. 저 멀리서 불길이 쪽악 보여요.

복구하는 데 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공화국 인민들은 내가 복구한 사회주의의 건설이다, 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내 손으로 직접 복구했다고. 전쟁 동안은 거의 다 토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기 집들 다 폭격 당하고. 복구하는 데 삼 년 걸렸어요. 복구 중에도 학교 수업이랑은 계속하고.

고등학교는 직장공업화학기술학교 다녔어요. 청수에 있는데 평양에 있던 화학연구소 부속이에요. 리승기 박사 알지요? 비날론 만든 리승기 박사. 그 부인(황희분)이 구십 몇 살인데 이번(이산가족 상봉)에 내려온다잖아요. 그 분이 내가 다니던 학교 연구소에 박사로 있었어요. 그 때부터는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지. 중학교까지는 한 번도 1등을 못했지만 거기서는 늘 1, 2등을 다녔으니까. 나라에서 학비 다 대 주고 장학금도 주고.

리승기 박사는 구라파 같은 데 가서 견학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와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서울대에서 교수하다가 전쟁 때 월북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던 분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지만 아주 전문 학교예요. 강의 한 시간 하게 되면 실습은 두 시간 이상, 어떤 때는 한 사십 시간 걸리는 실습도 있어요. 그 땐 공부를 상당히 재밌게 했어요.

**우리 형님은 군대 갔다 와서 민청 위원장으로 일했어요.** 내가 (남쪽에) 올 때도 민청에서 일했어요. 누나들은 결혼 일찍 하고. 큰누나는 내가 너무 작았을 때 결혼해서 언제 결혼했는지도 잘 모르겠네. 제일 막내 누나가, 이름이 최옥순인데, 저를 제일 많이 사랑했지요. 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집에 와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땐데. 큰누나 딸인기는 나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기도 나만했고.

기술학교 졸업하고는 이젠 현장으로 나가는 거요. 평남 승호리 시멘트공장. 거기 화학 실험실에서 공부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실험실서 공부하고. 이제 월급도 받고. 공장 안에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다 공장대학이라고 불리요. 큰 공장은 다 대학이 있어요. 8시간 일하고 나면 오후 4시가 돼요. 공부 시작하는 6시까지 식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도 좀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공부해요. 거기서도 최우등했어. 재밌으니까. 참 거기서는 짹사랑도 했어. 박춘자라고, 건강도 하고 믿음성이 있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거든. 그 후에 내가 편지 보내고 그랬어. 편지 왔다 갔다 하면 딴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니까 부끄러워했지. 그 여자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 답장은 받긴 받았는데, 자기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편지하지 말라는 거지. 나 혼자 좋아하다 말았지.

**스물다섯 살**, 1964년에 결혼했어. 부인은 같은 방산리 사람이야. 나보다 삼 년 아래니까 인민학교는 같이 다녔지. 나는 고등학교를 화학기술학교 다녔지만 거기는 삼업 있잖소, 누에 기르는, 그런 계통으로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우리끼리도 좋아하고. 압록강에도 나가서 같이 놀고. 여자들도 수영하거든. 런닝구에 빤쓰 입고. 그때는 수영복 없이 다 그렇게 입고 놀았으니까. 둘이 손잡고 걸어다니고, 뾰뽀는 안 했어. 압록강 따라서 오래 걷고. 뾰뽀,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구, 결혼 전에는. 나쁜 거야 아니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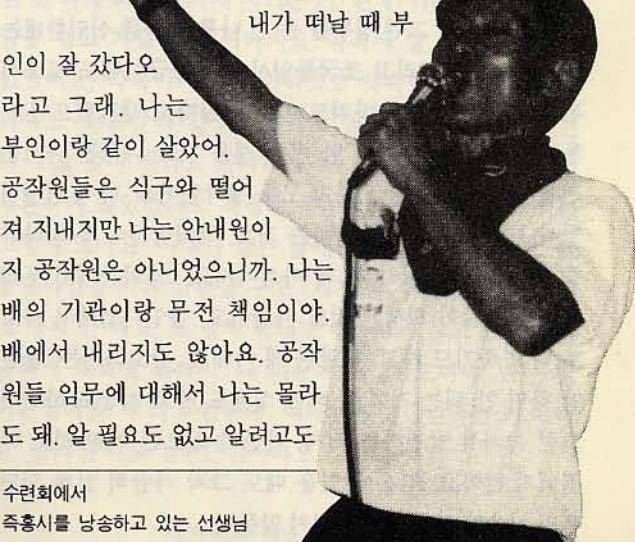
결혼해서는 이런 (공작원) 사업에 동원됐어. 살기는 고향 우리 집서 살았지. 우리 부인 이름은 백농녀. 나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저기 다녔지. 군대 갔다 오고 수산사업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이 사업에 동원됐으니까. 수산 사업소에서도 최우등했다구. 여기 내려올 때 내 역할이 무전사. 기관 같은 거 다 책임지는 사람.

춤 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 어려서 소년단 생활하면서 배우잖아. 민청 생활은 열네 살부터. 민청 전 단계가 소년단이니까. 소년단과 민청은 연령만 되면 다 들어가요. 조선노동당 입당만큼은 아무나 하지 못하지. 나는 60년도에 해군에 있을 때 입당했어요. 당에 들어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그리고 우리 당 정책에 대한 거 그런 거 많이 배워야지요.

김일성 주석도 눈 앞에서 만나 봤어요. 해군에 있을 때 주석님 탄생일에 중국에서 모택동 주석이 선물을 줬어요. 자기네가 만든 전투함 두 척. 내가 기관도 잘 다루고 무전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접수하는데 선발된 거여. 그래서 중국 대련에 가서 한 달쯤 그 배 두 척을 접수하는 거요. 다 따져 보고 점검해 보고 가져오는 거지. 그 때 내가 기관 분조장이야. 선장이 있지만 나도 직접 그 배를 몰고 온 셈이지. 남포로 들어왔는데 그 때 김주석이 온 거야. 남포항은 평양 관문이라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선물로 가져왔으니 한 번 보자, 해서 특별한 호위도 받지 않고, 비서하고 그 때 농업상이던 박정애 여사하고 같이 한 너덧사람이 왔더라고. 한 시간 전에 온다고 연락이 와서 다 준비해 놓고 전투복 차려 입고 대기했지. 아주 좋았지. 사열하고, 특히나 인제 배에선 기관이 중심이야. (김주석이 배에) 내려오셔서 여기 분조장이 누군가, 물으셔서 접니다, 내가 그랬지.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너그럽고 늘 웃음을 띠고 있고, (김주석) 인상이 그래. 참 너그럽고 인자하고.

결혼하고 한 일년 살았지. 떠나올 때 아기 가진 지 오개월 됐고. 남쪽에 나가는 분들 배로 실어나르는 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느냐고 그래. 그럼 내가, 위험해도 통일 사업이니까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지. 그럼 아내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몸조심하

라 그러고. 나오기 전까지 통천군 치국리에 있었다구. 정주영 고향 있지 않소? 총석정서 가깝지.



하지 않았고. 원산서 출발해서 목호 다 와서 잡혔지. 몇 분은 전향하고, 두 분은 돌아가고(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전향 공작할 때 두드려맞고 들어와서는 자결하시고. 나만 유일하게 이번에 (북한에) 돌아가지. 전향한 분들, 서울에 한 사람, 광주에 세 사람 있는데 이번에 전화가 왔어. 내가 (고향에) 가게 됐으니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감옥 있을 때 면회도 오시고.

그분 가족들 내가 잘 알거든요. 북에서 같이 떡도 해서 나눠 먹고, 이웃해서 살았으니까. 자결한 분 집에서는 내가 한 달 이상 밥도 같이 먹었다고. 우리 부인이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탁경협이라고 아들이 있었는데 경협이 가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 여섯 살짜리,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이번에 내가 가게 되면 그 소식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쁜 맘으로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안고 간다고. 선장과 부선장은 그 때 사형시켰거든. 우리가 65년도에 내려왔는데 68년도에 사형시켰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전 있을 때 알았지.

전향한 분들, 여기서 다 결혼했어. 아이는 없고. 그 분들도 고향 가고 싶지. 광주에 있는 분은 저 우에(북에) 아들이 있는데 아주 똑똑해. 아들 얘기 나오면 보고 싶다고 그러고. 지난 번에 전화하면서 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이번엔 비전향 장기수들만으로 못박았으니 할 수 없고, 다음번엔 전향한 사람 차례 아니겠냐고 그랬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전향한 거 자기 의사 아니거든.

당이 나에게 그런 임무를 준 건 나를 그만큼 신임한대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조국통일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 한 번 전쟁을 겪고 나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모두 생각했어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나라는 망하는 거요. 강대국들이 우리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 논 게 사실이지요. 그 와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고. 통일사업에서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하고. 허랑한 게 아녜요. 강고하거든. 물론 안 하면 안 되는 거이요. 해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그런 속에서 발전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저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처우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듯이.

저는 나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생각했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투쟁한다는 건 그건 참 힘든 거거든요. 나는, 힘든 길을 가자, 끝까지.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힘차게 열심히 살고 가자, 그리고 옆에 동지들이 있는데 내가 왜 힘차게 못 살겠는가, 그리고 여기 국민들도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데 끝까지 하자, 생을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힘이 나온 거지요.

감옥 안에서 약해진다거나 아무 의미를 못 느낀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되면 그 안에서두요, 하루하루가 상당히 귀중해요, 우리에겐. 책도 봐야지 공부도 해야지 또 앞으로 내가 생각한 거를 시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고립된 생활을 안 하게끔 부지런히 투쟁해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안에서도 좀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하루 힘차게 살리라. 일년을 힘차게 살고 십년 십오년 삼십년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하게 되면 그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만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건 쉽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남에게 손구락질 받지 않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루, 하루.

황폐하기도 했지. 그래 나는, 좋다, 이렇게 됐으니 사는데까지 살아보자, 그랬지.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 내가 통일을 못 보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제일 먼저 떠올른 건 부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혼자 살아나가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거이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 울진 않았어. 두드려 패고 그럴 때도 한 번도 울은 적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딱 세 번 울었어요. 입양아가 미국에 갔다가 여기 와서 어머니 찾으며 우는 거 책에서 볼 때 참 안 돼서 울었고. 눈물 없인 못 읽겠어요, 그 때 한 번 울고. 그 담엔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있잖아요. 내가 잡지를 봤는데 몇 개월 지났을 거야, 어린 여학생을 전봇대에 묶고는 가슴을 총검으로 찌르는 기사를 봤어요. 일본 기자였는데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 때 울고. 마지막은 작년에 (감옥에서) 나올 때 친구들하고

고 헤어질 때. 거기 인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헤어질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잘 가시라, 잘 있으라 할 때 참… 젊은 사람들 남겨 놓고 나올 때 그 때 눈물이 났어요.

**부인 때문에는 거의 안 울었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 지금 편지 못 가는 거는 저 이북밖에 없거  
요. 그 이북을 바라보면서 지은 게 “내 사랑 당신” 이야.  
외워 볼게.

수만리 편지 오고가는데 / 지척의 땅 너와 나는 소식  
없이 삼십오 년 어이하리. / 당신 얼굴 그리며 북녘  
하늘 바라보니 / 별들만 반짝이누나. / 사랑하는 아내  
여 / 손을 펼치니 내 손을 잡아 주오. / 하나된 조국을  
위해 너와 나는 힘차게 살리라. / 아 내 사랑 당신, 내  
게로 영원히.

우리 부인은 좀 동글동글하고 몸이 실한 편이지. 나는  
좀 말랐고. 우린 서로 반대야!

맞아, 이제 돌아갈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요즘 느낌이  
라… 근데 사실 막상 간다고 하니까 날짜를 세거나 기달려  
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너무나 포기를 해서 그런지 그런 데  
대해선 담담하고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다 그런 건 느껴요.  
여기서 지금 정리할 것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게 되니까 기쁘지만 이렇게 기쁨을 준 여기  
민가협, 통일 일꾼들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되  
고, 만약 싸우지 않았다면 국제적으로도 우리 이름이 나타  
나지 않았을 테고. 그분들에게 열번 백번 감사를 드려야 하  
고, 또 가서도 잊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이제 8월 21일부  
터 24일까지 대전 민가협하고 통일 일꾼들이 저 한라산 정  
상에 저를 세워놓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 북녘  
과 백두산을 향해서 형제들에게 ‘여기 남쪽 통일 일꾼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최수일 건강하게 여기 한라산 정상에 섰  
노라’ 외칠라고 합니다. 또 한 달 후 구월 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가서는 백두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정상  
에 오르면 남녘 저 한라산을 향해 통일 일꾼들 건강하시라  
고 내가 또 외칠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보게 되면 젊은 기  
간 안에 한라산에서 또 백두산에서 내가 외치게 되는데 그  
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지를 못하지요.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기 통일 일꾼들은 남에서 나  
는 북에서 열심히 싸웠으면 하는 거이 내 희망이고,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또 기쁜 맘으로 가지마는 슬픔이 앞서는 건  
여기 있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니까 슬프고. 또 몸은 비록  
가지만 마음은 남겨두고 갈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잊  
지 않기 위해. 그리고 통일 되기 전이라도 여기 있는 분들  
이 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에 관광을 와서 구경을 와서  
저를 부른다면 달려나가서 포옹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 북에 가서 저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  
된 조국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것이고 통일 되기  
전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시 한번 남에 내려가 친  
구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거요.

나는 여기 남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  
요, 한 사람도. 그러나 지금은 백 명, 천 명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북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  
고 싶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같이 일하던 분들도 만나고  
싶겠지. 한 식구같이 지냈으니까. 처음엔 저를 잘 안 믿었  
어요. 그러더니 한 육개월 지나니까 저를 굉장히 신임을  
해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기 잇속을 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준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원래. 뭐 하나 생겨도 나눠서 같이 먹고. 다 나한테 맡기고.  
내가 떼 먹으면 어쩔라고 그러느냐 하면 떼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떼먹는 건 괜찮대. (웃음) 같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내가 여기 일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서로 이  
야기 주고 받고 시간 좀 지나면 다 정이 들어요.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한 번 하게 되면 끝까지 지키는 거. 한 번 약속을 했으면 목  
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지요. 감옥에 살 때도 혼들림이  
없었어요. 약속이니까. 부인하고도 약속했지요. 백년해로  
하자고. 한몸같이 일생을 살자고 했지. 북에 가면 부인한  
테 수고 많이 했다고 해야지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재혼하지 않았겠냐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많지만 저 위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고, 또  
통일사업을 나온 남편을 두고 (재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  
게 생각 안 해요. 또 설사 갔대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담  
담하게 축하해 줘야지.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나는 일  
편단심이요, 우리 부인한테. 여자만 일편단심하는 거 아니  
요, 남자인 나도 일편단심이라오.

얘기 나눈 사람, 사진 · 유현미 후원회소식 편집부

## 30, 40년 감옥문이 열렸듯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시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람

선생님, 목청 돋우어 노래를 불러 젖힐 때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움을 믿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넘지 못할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살아가는 일이 생각처럼 녹녹치만은 않다고  
느껴질 때 주먹 쥔 손을 더 높이 치켜들며 우리가  
가 '참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느껴 보셨습니까? 손에 손을 굳게  
잡은 참사람들의 한 판 어울림의 마당을, 신명  
가득한 희망의 노래를 안주 삼아 어깨춤 덩실  
거리던 해방꾼들의 참 세상을!

새 천년 8월 19일, 그날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전국 각지로부터 배낭 하나 들쳐 멘 사람들의  
발걸음 발걸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꼬

운동장에서 흥겹게 어우러지는 순간 찰칵!

사진/ 이재천



지' 분교 터로 향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얼굴만 어렵잖이 기억나는 1년만의 만남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신뢰와 사랑만으로도 서로의 모습을 따뜻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그 무엇이 장구한 세월을 견뎌내고도 그처럼 변함없는 완강함을 견지할 수 있게 했을까요?

운동장 구석구석으로 발길을 돌리며 잔잔한 미소를 담아 서로에게 눈인사를 전한 뒤 세상의 부조리까지도 품어 안을만한 넉넉한 운동장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 할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공포의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나누어진 9개의 모둠은 주최측의 농간, 계략에 의해 다시 장기수 선생님과 민가협 어머님, 후원회원, 꼬마들이 적정비율로 흩어졌고, 그 와중에도 선생님께서는 장기자랑을 준비할 재주꾼들을 스카웃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지요?

이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한 판 축제였고, 후원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부터도 복사꽃 같은 웃음을 터트릴 만큼 우리들은 이미 서로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는지요?

그 날, 김수룡 선생님께서는 막간을 이용해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당신만의 맛깔스러운 분위기로 바꾸어 부르셔서 저희들을 요절 복통하게 만드셨지요. 특히 "우우우 우우우우~"를 손으로 지휘까지 하며 박자를 맞추시고 자 애쓰신 모습은 지금도 영화 필름이 돌아가



듯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예술가적 기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민가협 어머님들의 활약상은 아침 햇살이 서려울 정도로 눈부시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처음으로 수련회의 입소식 사회를 보신다는 민가협 어머님은 놀랍게도 한총련 버전의 말솜씨로 시종일관 그 당당함을 잊지 않으셨고 젊은 청년 못지 않은 열정을 과시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식판에 앉아 먹은 저녁은 시장기를 반찬 삼아 그야말로 마파람에 계눈 감추듯 맛나게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음식 맛을 결정한다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진작 아셨는지요?

이윽고 “우리 다시, 교우 만나요!”-선생님들 환송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분교 운동장에도 땅거미가 짙어갈 무렵, 땃국물 흘리던 이름 모를 꼬마 녀석들의 내음이 느껴지는 소강당은 어느덧 선생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후원회원들의 함성과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사회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광기 님의 사회로 소강당은 내내 감동과 웃음과 눈물로 범벅되었습니다.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소개되고 난 후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어머님의 송사는 힘차고도 슬펐습니다. “선생님들을 모셨던 일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 하시던 어머니. 아, 그랬군요. 김동기 선생님 말씀처럼 어머니들은 3, 40년 감옥살이 동안 선생님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거군요!

선생님, 어디서나 아름다운 만남은 있나 봅니다. 선생님(양정호)과 저의 만남처럼 김성희 회원과 홍경선 선생님의 만남 역시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편지를 낭송하는 모습 그리고 홍경선 선생님과 나란히 선 모습은 그 어떤 세상 부녀의 모습보다 눈부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견디었나 봅니다. 곁에 선 사람들에게 살포시 느껴지는 온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굳게 엮인 믿음으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나 봅니다.

선생님, 생각나세요? 19일 아침 갈현동 만남의 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노래 ‘우리 다시 만나요’를 열심히 연

습했었지요. 녹화된 비디오를 보고, 가사를 적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무릎까지 쳐가며… “백두에서 한라로 우리 하나의 겨레~ 목 메여 소리 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노랫말을 음미하며 선생님과 저는 북녘과 남녘의 동포가 얼싸안는 행복한 꿈을 꾸며 함께 전율했었습니다.

선생님,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그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해 선생님들과의 기약 없는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밤 새워 보라색 수건에 수를 놓았습니다. ‘통일’이라는 글자에 한 땀 한 땀 노란색 실이 그 흔적을 남길 때마다 마치 통일의 길을 닦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생님들께서 흘리신 진달래빛 피땀을 닦아드리는 밤으로 이제는 민가협의 상징이 되어 버린 보라색 수건을 선생님의 목에 묶어 드렸습니다. 3,40년의 높디높은 감옥문을 끈질긴 투쟁 끝에 열고 말았던 민가협 어머니들의 그 고단한 세월들도 그 보라색 수건에 담겨 있겠지요. “오랫동안 고난의 길 마다 않고 걸어오시더니, 이제는 자주와 통일로 가는 큰 길 열며, 푸른 조국하늘 그리운 얼굴들 만나게 되셨군요. 언제나 건강하셔서 통일노래 함께 부르며, 뜨겁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선물도 선생님들 손에 쥐어드렸지요.

그날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던가요.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 일을 다 이야기 하고, 혹여 우리가 다시 못 만나더라도 내 후대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께요.’ 그래요, 선생님. 정말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3, 40년 감옥문이 열렸듯이, 굳게 닫혔던 분단선도 이제 열리고 있듯이 선생님들과 다시 만날 그날도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선생님,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하나님을 기원하는 축포이듯,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강하듯 곱게 비가 내렸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며 서로의 바램으로 장작불을 지폈고 하나의 불씨가 조/국/통/일 네 글자를 활활 불태웠던 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이 뿐만 씨앗이 머지않아 조국



모닥불 앞에서 통일 춤사위를…

사진/ 이재천

통일의 열매로 여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덩덩 덩따궁따, 덩따궁따 덩따궁따' 그날 따라 풍물 가락은 왜 그렇게 흥겨웠는지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대동(大同)의 춤판에 뛰어들었고 저마다의 가슴에 또아리 틀고 있었던 설움과 한(恨)이 '맺히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해방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선생님, 사그라지는 장작불의 불씨를 뒤로 한 채 저는 분교 터 한쪽 구석에 자리잡은 미끄럼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라도 놓칠 새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손으로 찢은 배추김치에 막걸리 한 잔 쭈욱 들이킨 후에 야 한 품에 안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티나무, 기분 좋게 살갗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간간이 흘뿌리는 빗방울을 얼굴에 맞으며 사람,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념 하나로 고난의 행군을 거뜬히 버텨온 사람들! 아, 세상의 그 어떤 그림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 선생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남도 창을 멎들어지게 부르시는 어머님들의 레페토리는 입이 쪽 벌어질 정도로 끝이 없었고 그 홍 또한 끝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저기 모여 앉은 이들의 이야기 또한 내리는 빗줄기와 함께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처럼 못다 나눈 이야기로 회포를 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모두들 밤을 꼬박 새워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저희들도 축복 같은 통일 신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미가 한 여름밤의 정적을 깨뜨리더니 어느새 그 자리를 귀뚜라미 녀석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은 풀벌레 하나도 이미 몸으로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있나 봅니다. 참된 인간사(人間事)의 섭리는 언제쯤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는지 안 타깝기만 합니다.

선생님, 내년엔 조금은 허전한 수련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떠나신 뒤 남겨진 그 공간을 남아계신 선생님들과 언제나 당당하신 민가협 어머니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매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선생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자, 통일의 그날 뜻뜻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위해, 진정 꽃보다 아름다운 '참사람' 이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낙숫물이 땅을 깊게 파고야 말 듯이 작은 힘 모아 견뎌내려 합니다. 이겨내려 합니다. 그리하여 끝내 승리하려 합니다.

선생님, 그날까지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비록 늘 뵈 수 없다하더라도 언제나 마음으로 그리워 간직하며 그곳에 계셔 주십시오. 끝까지 계셔만 주십시오. 다시 뵈 그날은 아마도 이별의 아쉬움을 즐거운 추억으로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신명의 대동 굿판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덩더쿵 풍물 소리가 한반도 하늘 땅 가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김은하 · 회원, 교사

## 남녘의 흙을 한아름 들고 가소서

이철 · 일본 오사까

장기수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내와 가족이 마련하는 따뜻한 밥한술 받아드시기가 이렇게도 어려웠습니까?

15척 담보다 훨씬 높고 무거운 분단의 벽을 불굴의 신념으로 부수고 보니, 총각 김선명 선생님도, 이재용 선생님도 총각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 팔팔했던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도 늙으셨군요.

징역살이 합쳐서 2,854년이라니, 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한때 선생님들한테 귀여움 받으며 함께 옥살이 한 저희 재일한국 양심수동우회와 120여 재일동포 양심수들은 선생님들의 귀향을 충심으로 기뻐하면서도 그저 슬퍼지기만 합니다. 선생님들을 안에 남기고 먼저 출옥한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늘 송구스러웠고, 선생님들 가족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두고 그립고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부탁하는데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청춘의 피가 뿌려지고 뚜렷한 발자국이 남은 남녘의 흙을 한아름 가져가소서. 그리고 험했던 암흑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과 같이 가고 싶어도 남아야 할 많은 분들의 슬픔을 그 흙에 담아서 가져가소서.

선생님들, 부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꼭 다시 와주소서.

이 다음에는 혼자 오시 말고 북녘의 가족과 손자 손을 잡고 오소서. 인생의 태반을 남녘에서 지내신 선생님들 이상 민족통일의 소원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후회는 없어도 아쉬움이 있다하신 김동기 선생님, 저희들에게 그 아쉬움을 남겨놓고 가소서. 선생님들을 그동안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해준 남녘 젊은이들 가슴에 선생님들 아쉬움이 오래오래 남고 더 커서, 마침내 7천만의 아쉬움으로 자라 이 나라를 통일시킬 것입니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있는 일본에도 꼭 와주소서.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와 120명 양심수들은 선생님들과 만나서 지난날 이야기를 아주 삼아, 인간승리 민족통일의 술잔을 들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떠나시는 이때, 마음 같아서는 단숨에 달려가고 싶어도 못가는 저희들입니다.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일본에서 엎드려 절하며 석별인사 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의 해 8월 26일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대표 이철 배상

---

이 편지를 쓴 이철 선생님은 재일교포 유학생(고려대)으로 한국에 왔다가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1988년 풀려나, 13년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민항숙 님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일본 오사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가슴속 깊이 남겨진 선생님께



홍경선 선생님과 남쪽에서 마지막 만남.

홍경선 선생님께.

장기수 송환이 발표된 6.14일 11시 40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는 뜨거움에 잠자는 신랑까지 깨워가며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기쁨보단 죄송스러움, 안타까움이 앞서네요.

출소하고 나선 서신을 나눴을 때 보다 더 신경 써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발표 후 많은 일로 바쁘실 선생님을 잡고 얘길하자니 웬지 너무 늦은 것 같고, 제가 끼어들 틈이 있는지도 몰라. 먼 빌치에서 선생님 옷자락만 잡고 빙빙도는 심정입니다. 근데 이마다가 선생님 그냥 가시면 제 마음 평생 후회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선생님 앞에섰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만난 그 시작처럼 편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선생님을 안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세상 두려울 것 없던 통통튀던 대학 4년에 서신교류를 시작해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5척 담장 안에 생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 카드, 선물도 요상한 것만 골라 보냈던 저. 그 선물에 밤잠을 못 이루고 꼬박 날을 새셨던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과의 만남은 시작되었죠.

그려고 보니 선생님의 여러 모습이 기억나네요.

조롱박, 도장, 목걸이, 붓글씨 등 교도소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어렵게 전해 주시던 모습, 어렵게 이뤄진 첫 접견 20분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아쉬운 마음에, 했던 질문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결국엔 아크릴 판을 사이로 손을 맞대어 인사하고 돌아서셨던 모습.

제가 어떤 슬픔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갖는지도 아시고 다독여 주셨던 모습. 그런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선생님은 더 이상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 구체적인 분으로 다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쯤, 95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양심수식방 캠페인에 참가했습니다. 0.75평 실제 감옥이 만들어져 각계 인사들이 하루감옥 체험을 했지요. 저는 그때 혼자 감옥안에 들어가 살짝 누워 봤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전 눕자마자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죠. 솔직히 머리를 땅에 대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제 자신을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의 70여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인간이 이다지도 큰 짐을 지고 살아 갈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훔치고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니들 몰래, 감옥 체험에 쓰일 수의 수감번호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수감번호 3501번.

전 그날부터 장장 3일간을 선생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나와 손 흔드시며 크게 웃으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98년 3월 그렇게 열원하던 선생님이 출소하셨지요. 선생님과 단둘이 대전역을 가르며 진정한 자유의 첫발을 내딛던 그 가슴터질 듯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젠 모든 비전향 장기수 분들이 북으로 가신다구요. 정말 그렇게 열원했던 그 날, 지난 힘겨움을 얘기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줄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정녕 기쁨만 있는건 아니네요. 선생님이 가신다는 아쉬움, 그리고 안아야 할 빈자리.

선생님들 가시면 저희 정말 허전할 것 같습니다. '장기수' 말만 들어도 괜시리 목젖이 뜨거워 졌는데, 먼 발치에서, TV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내 부끄러운 삶 추스려 보았는데 이젠 누굴보며 내 삶 다독여보나 싶습니다. 허나 선생님. 곧 다시 만나겠죠? 서로 다시 만나 통일의 춤. 더덩실 출 그날이 곧 오겠죠? 저희 그때까지 어깨 곧추 세우고 살께요. 내 땅 내 조국의 흙 한줌, 풀 한 포기 귀히 여기고 올곧게 살께요. 선생님들도 그때까지 건강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꼭 건강하셔서 다시오겠다고 말입니다.

2000년 8월 19일 성희 드림

선생님 가시기 하루 전 날.

헤어지는 게 아쉬워 선생님 곁에 자겠다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 갔었죠.

그날도 선생님은 젊은 사람들 몇몇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드셨고 전 괜한 기분에 안 먹던 술을 먹어대다 초 저녁에 쓰러져 어머니들과 같이 잤죠.

그렇게 아쉽게 보낸 마지막 날.

출근하려 길을 나서는 저를 지하철 까지 마중하시며 손 흔드시던 선생님.

이쪽에선 빨리 들어가시라고 손짓하고, 저쪽에선 출근길 서두르라며 손짓하며 서로의 뒷모습을 보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9월 2일 가시는 날에도 저녁 마감뉴스까지 채널마다 돌려가며 선생님들의 보도내용을 봤답니다. 특히 마감뉴스에 나온 북한 환영 인파와 선생님들이 부둥켜 안는 장면은 녹화까지 해 봤어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선생님 얼굴을 찾으려 몇번을 되감고 되감아 보다, 결국 TV에 비춰진 몇몇 선생님들의 모습을 찾고서야 선생님을 본 듯 마음이 놓이더군요.

사실 선생님 가시기 몇일 전까진 사진, 녹화 테잎등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간직하여 챙겼어요. 근데 지금와서 보니 그런건 다 필요 없다 싶어요. 더 의미있는 게 제 가슴 속 깊이 묻어져 있으니 말예요. 그건 바로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지독스런 삶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과 저와의 믿음이죠. 마지막 날 '선생님, 다음 생엔 조금이라도 좀, 편한 생으로 태어나세요'라는 말에 '그래도 내 생에 전혀 후회가 없다' 라며 웃어 보이시던 모습, 금재성, 최남규 선생님의 병 치례는 물론 그 분들의 짐을 챙겨 가족들에게 주시겠다는 모습, 그리고 저와 지지고 볶으며 울고 웃던 7년간의 시간들, 제가 어떻게 잊고 살수 있겠습니까.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 다니고, 애 키우고, 밥하면서 설령 선생님 일을 잊어간다 해도 이젠 '죄송했다, 무심했다'는 말 안할 거 같아요. 그건 잊은게 아니라 가슴에 묻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성희가 지금 올곧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꺼라 믿어주세요. 저 또한 선생님이 절 그렇게 믿고 계실 것이란 믿음 가지고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갈께요.

(참 좋네요. 이 세상에 절 믿어주고 그 믿음 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관계가 있으니 말예요. 하하) 선생님 앞으로 저도 술 좀 배워 볼테니 선생님께서도 건강 유의 하세요. 건강하셔서 저와 술도 한판 벌이고 금강산, 백두산 구경도 시켜주시고 남한의 술한 노처녀들 중매도 시켜주셔야지요. 그 때 까지 건강 유의 하시구요(제발 늦게까지 술자리에 계시지 마시구요.) 꼭 다시 뵐요.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2000. 9월 17일 성희 드림

김성희·회원, 교사

##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9월 2일, 판문점으로 떠나기 전 북악파크 앞마당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고 있는 선생님들. 조창순 선생님은 앰뷸런스에 실려 도착했는데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훨체어에 링겔병을 꽂고 함께 하셨다. 사진 한겨레21 이정용

### 9월 2일 아침, 평창동 북악파크

판문점을 거쳐 북으로 떠나실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북악파크 호텔 앞은 경찰들이 서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인다. 가로막든지 말든지 그런 작은 걸림들이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제 정말로 작별해야 할 시각이고 떠나기 앞서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다시 나눠야만,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으로 허겁지겁 달린다. 적지 않은 환송행사들을 보면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마당 오른쪽에는 버스 석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고 선뜻 버스에 오르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얼른 길을 비켜드리지 못하는 남쪽 사람들이 호텔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웃는 낯으로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출발시간이

다가오면서 울음이 섞이기 시작한다.

고생 많으셨어요… / 건강하시고… / 선생님…

끌맺지 못하는 인사말을 눈물이 대신하고 움켜잡은 손에 힘줄이 도드라질 즈음, 어느 친지 분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앞마당은 흐느낌으로 일렁인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의 이별을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민가협 어머님들이 준비해온 플래카드 앞으로 사람들을 부른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버스가 시동을 걸자 강물처럼 버스 앞으로 밀려간다. 얼싸안은 채, 눈물을 훔치면서, 차마 손을 놓지 못한 채 아까의 흐느낌은 목놓아 우는 울음으로 자랐다. 적십자사 사람을 태운 버스가 맨 앞, 선생님들을 태운 버스 두 대, 류한욱 선생님이 누우신 구급차, 급성폐렴의 뒤끝으로 링겔을 꽂고 계신 조창순 선생님의 구급차가 차례로 달리고 배웅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차가 긴 행렬로 이어진다. 민가협 어머니들은 8인승 승합차에 15명까지 빼곡하게 타신 채 행여 버스를 놓칠세라 버스 뒷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신다. 행렬은 '자유로'를 달려 '통일의 관문'으로 내달린다.

### 개성? 개성!

어느 순간 '개성' 표지판이 나타났다. 아, 이대로 계속 달리면 '개성'에 닿는구나! 놀란 눈으로 다시 살펴도 붉은 가위표가 없다. 달려도 된다는 뜻인가. 정말로 이대로 달리다가 '개성' 까지 이르는 환상으로 긴장한다. 시속 80, 90 킬로미터의 속도감의 시원함만큼이나 '개성'이라는 글자가 통쾌하다.

'통일의 관문' 앞에서는 김용갑의원 등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행과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 시위의 여파로 행렬이 멈칫 한다. 군인들은 버스만 통과시키려고 하나 알아듣지 못한 척, 버스 뒤를 쫓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머지 행렬은 둥텅 잘려졌다. '통일의 관

문' 철문 앞에서 차를 세운채 안타깝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통일을 가로막고 서 있는 '통일의 관문' -그것의 새로운 의미와 그 철 구조물을 세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절망스럽게 와 닿는다.

여전히 '개성' 표지판이 살아있는 길 양쪽에는 철조망을 이고 선 울타리가 눈길을 가로막는다. 그 울타리에서 우리가 결코 '개성' 까지 내달릴 수 없음을 알아챈다. 멀리 붉은 갈색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건물을 판문점으로 착각한 것은 버스가 멈춰선 탓이다. 이제 내려서 선생님들께 안녕히 가시라는 배웅인사를 허리숙여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

###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멀쑥하게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가로막는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 다가가니 담벼락을 막아서듯 막아선다.

"이 흰색 페인트를 넘어서부터 우리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유엔관할입니다."

멀쩡한 우리 땅을 가리키며 우리 땅이 아니라니…

어리둥절 서 있는데 뭔가를 눈치채신 듯 어머니들이 뛰기 시작한다. 아이처럼 맹렬하게 뛰어간 어머니들은 버스를 세차게 두들기고 선생님들은 다슬기처럼 버스유리창에 붙어 두들기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그대로 교도소 철문 앞 풍경이 되었다. 선생님들 석방하라고 교도소 철문을 두들기며 외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순간 거대한 감옥, 분단이란 커다란 감옥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음을 깨닫는다. 저 두들김 소리는 분단의 감옥을 끝내고 통일 길을 열라는, 온몸으로 싸워온 사람들만 이 때릴 수 있는 진실된 소리일 것이다.

###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맨 끝에 있던 조창손 선생님이 실린 구급차. 내내 닫혀 있던 창문이 열리고 선생님의 마르고 가는 팔이 뻗어나와 팔꿈치를 창턱에 괸 채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신다. 그 모습이 흡사 조각배의 노젓는 것처럼 보여진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얀 구급차로 떠 있는 조각배 - 분단된 조국이라는 험한 바다에서 통일이라는 희망을 찾아 목숨 걸고 항해



사진 아래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로 들어서고 있는 선생님들. 양정호, 안영기, 신인영 선생님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이정용

하다가 이제야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계신 선생님의 노젓기처럼 보였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 숙연한 노젓기에 할 말을 잊고 셨는데 어머니들이 가로막는 사람들을 밀치고 뛰어가 선생님의 손을 움켜잡으신다. 참으로 거칠 것이 없는 어머니들이다. 바로 이러한 힘으로 오늘을 일궈내신 것일 터이다.

우리 땅을 가리키며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선생님들과의 마지막 인사는 형편없이 구겨졌다.

도둑맞은 듯한 허탈함과 분노를 달래며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북한음식을 청해본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드실 음식들은 이러하겠구나, 개성쯤 도착하셨을까, 평양도 가까운 거리인데, 점심은 평양에서 드실려나… 북한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한 음식을 앞에 두고 제대로 이별하지 못한 마음이 더 허기를 느낀다. 석간신문에는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판문점을 통과하는 사진이 실렸다. 선생님들 뒷모습만으로 한 분 한 분 가려가며 이름을 불러본다. 아침에 서울을 떠나 평양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지리감각마저 혼란스러워 하는 의식이 문득 두려워진다.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그 많은 세월이 걸리다니…"

어느 어머니의 탄식을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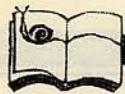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가르친 <꼭 다시 만납시다!>는 약속은 정들었던 사람들의 사사로운 약속이 아니라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임을 새롭게 깨닫는다.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나이  | 본적 또는 출생지 | 기족관계                     | 체포일자                                  | 형량            | 복역 기간        | 석방일자          | 남쪽거주지            | 건강상태                 |
|----|-----|------------|-----|-----------|--------------------------|---------------------------------------|---------------|--------------|---------------|------------------|----------------------|
| 1  | 류한우 | 1911-5-24  | 90세 | 평북 철산     | 평안북도 신의주시 미령동            | 0마니-김영교 부인-차계숙, 딸-동진 등록, 이들 동원        | 55-00-00      | 무기           | 37년 91-2-25   | 서울 '우리팅제원'       | 뇌졸중, 반신불수, 당뇨        |
| 2  | 이 종 | 1911-8-9   | 90세 | 충북 영동     | 청해도 안악군 괴수원, 평양          | 부인 김영아, 이들 형·형아, 딸-동우, 이들 상인 상설상      | 59-03-00      | 10년+감호15년    | 25년 88-05-00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당뇨, 관절염, 고혈압, 혈장     |
| 3  | 유언철 | 1912-0-0   | 89세 | 경북 안동     | 평양시 서구 동성동               | 부인 김봉희, 이들 상인 상설상, 딸-영자, 상화           | 55-10-09      | 20년+감호7년     | 27년 82-05-00  | 부산 부민동           | 심지성병, 이혈             |
| 4  | 김종호 | 1913-8-2   | 88세 | 경북 김천     | 평양시 서구역 모란봉구역 경기장 부근     | 부인 김경옥, 이들 청수                         | 61-05-25      | 무기           | 31년 91-05-25  | 대구 '민들레집'        | 증증후유증, 사려간질, 위상절환    |
| 5  | 김식형 | 1914-4-13  | 87세 | 평북 봉천     | 평양시 보통구역 서감동             | 부인 김우희(3남생) 발산부길 소, 이들 평양·강릉·광주·광호·광성 | 62-11-00      | 무기           | 30년 91-12-24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고혈압, 허리통증, 팔다리증      |
| 6  | 임병호 | 1915-9-1   | 86세 | 충남 보령     | 평양시 중구                   | 부인 김생녀, 딸-성희, 이들 정희, 광자               | 59-09-27      | 무기           | 32년 91-12-24  | 서울 '혜명양로원'       | 심장부정맥, 현기증, 위장질환     |
| 7  | 한종호 | 1916-0-0   | 85세 | 함북 함흥     | 함남 흥남시 비로공장              | 없음                                    | 51-00-00      | 15년          | 16년 64-0-0    | 경기               |                      |
| 8  | 강동근 | 1916-11-19 | 85세 | 경남 하동     | 군생회 이동파문에 일정주소 없음        | 51-01-00                              | 무기(23년)+감호14년 | 37년 89-10-11 | 부산 '정희양로원'    | 오른팔 앓음, 고혈압, 심장병 |                      |
| 9  | 방재순 | 1917-2-25  | 84세 | 강원 횡성     | 강원도 원산시 시민안락원회방 억소현재(평양) | 부인 김선옥, 딸-시진                          | 53-08-00      | 무기           | 38년 91-02-25  | 강원 횡성            | 고혈압 등                |
| 10 | 윤희보 | 1917-10-10 | 84세 | 경기 광주     | 형해도 산천군 시직동              | 부인 전순희, 딸-정혁, 누님, 형님, 두이동생 3명         | 52-11-18      | 10년+감호15년    | 25년 89-07-20  | 서울 쌍문동           | 뇌경경화, 저혈압(100.5)     |
| 11 | 신인수 | 1918-4-1   | 83세 | 경북 청도     | 함북 김천시 상회동               | 부인 곽재자(세) 이들 수령·학원, 수연(44·55년생)       | 58-10-09      | 15년+감호15년    | 30년 89-10-01  | 대구 '영락양로원'       | 관절염                  |
| 12 | 전창기 | 1918-4-10  | 83세 | 충남 천안     | 평북 축주군 석주면               | 부인 윤순증, 딸-문자 영숙, 이들 중우·중국             | 55-09-00      | 10년+감호13년    | 23년 89-08-01  | 전북 군산            |                      |
| 13 | 장 호 | 1920-11-29 | 81세 | 서울 미포     | 평양시 모란봉구역 철성문동 8번지       | 부모 정기열·김정숙, 부인 김정희, 동생·척우, 즐악         | 58-07-25      | 무기           | 32년 91-02-25  | 과천 '한백의 집'       | 시력감퇴 등               |
| 14 | 김우택 | 1920-1-8   | 81세 | 경북 안동     | 흥해도 봉산                   | 없음                                    | 52-11-14      | 무기           | 40년 91-02-25  | 부산 반송2동          | 간염, 신경통              |
| 15 | 한백렬 | 1920-2-16  | 81세 | 경기 광주     | 평양시                      | 형제4인 형수(경정), 동생·백무                    | 56-10-10      | 10년+감호13년    | 23년 68-8-89-7 | 경기 성남 분당         | 오른쪽 대퇴부 절단, 시력 청력 감퇴 |
|    | 홍문기 | 1921-9-14  | 80세 | 평양 선교리    | 평양 선교리                   | 부인 이옥신, 이들 철영·필·... 57-05-20          | 무기            | 37년 93-03-06 | 과천 '한백의 집'    | 척아, 시력·청력 감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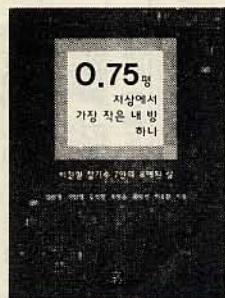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나이  | 본적 또는 출생지 주소지 | 가족관계 있었던 주소지                            | 체포일자                     | 형량                        | 복역 기간    | 석방일자           | 남쪽거주지          | 건강상태              |
|----|----------|------------|-----|---------------|---|--------------------------|---------------------------|----------|----------------|----------------|-------------------|
| 17 | 이세균      | 1921-12-18 | 80세 | 전북 전주 풍양사     | 부안-0순자, 이들만백만 죽, 백운복                    | 51-03-09<br>15년+감호15년    | 30년                       | 89-08-08 | 서울 번3동         | 위성철환           |                   |
| 18 | 김명수      | 1922-5-1   | 79세 | 함남 함흥         | 함남 흥남시 운송리 732-325                      | 57-07-28                 | 무기                        | 37년      | 93-03-06       | 충남 논산          | 폐결핵               |
| 19 | 한장호      | 1923-5-1   | 78세 | 함북 나진         | 부안-한성복, 떨-영자 영희, 이들 영식                  | 57-11-20                 | 무기                        | 39년      | 95-08-15       | 대전 '사랑의 집'     | 노쇠, 가락감티          |
| 20 | 김인수      | 1924-5-27  | 77세 | 강원 원산         | 부안-한성복, 떨-영자 영희, 이들 영식                  | 62-08-19                 | 무기                        | 36년      | 98-03-13       | 서울 봉천6동        | 손발림, 당뇨, 혈관증, 고혈압 |
| 21 | 김용규      | 1923-6-22  | 78세 | 전남 보성         | 평양시 중구 근회리                              | 52-01-27<br>20년+5년+감호    | 38년                       | 89-10-07 | 서울 상봉1동        | 전신부종 고혈압 정질환   |                   |
| 22 | 전진       | 1923-7-6   | 78세 | 전북 익구         | 전북 익구군 회현면                              | 51-10-00                 | 무기                        | 43년      | 93-03-06       | 서울 시봉천9동       | 경기 부천 아파트증정       |
| 23 | 이중환      | 1923-1-15  | 78세 | 경기 부천         | 경기도 개성동(민원원회)                           | 53-02-04<br>15년+13년      | 28년                       | 93-03-06 | 부산 양로원         | 청력장애, 미비현상     |                   |
| 24 | 박문재      | 1923-9-14  | 78세 | 경기 개성         | 평양시 선교리 82번지                            | 52-02-00                 | 무기                        | 35년      | 89-08-00       | 서울 가양동         | 노인성체력감퇴           |
| 25 | 황용갑      | 1924-5-28  | 77세 | 경남 하동         | 경남 하동 석양면                               | 54-08-00<br>무기[4,19년2감호] | 34년                       | 89-10-12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뇌졸증, 변산불안, 혈관증 |                   |
| 26 | 류운형      | 1924-12-26 | 77세 | 함남 이원         | 가족들 헤어지기 전 강원 철원 부모 유령근 이명 어동생 유 귀녀 유우순 | 67-09-17                 | 무기                        | 33년      | 98-03-13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폐결핵, 위질환          |
| 27 | 홍경선      | 1925-5-21  | 76세 | 충남 천안         | 함남 단천시 두언 노동지구                          | 어마니이봉신, 형-최춘경, 형수-조카, 딸  | 55-09-25<br>15+3년+ 감호(11) | 29년      | 89-10-12       | 서울 불광1동        | 폐결핵, 고문후유증, 정신불안  |
| 28 | 한준익      | 1925-6-10  | 76세 | 함남 함흥         | 전남 구례군 미산면 사도리                          | 52-02-16<br>무기[9년3감호]    | 30년                       | 89-10-00 | 서울 월계2동        |                |                   |
| 29 | 김영만      | 1925-9-29  | 76세 | 전남 구례         | 서울 시 영등포구                               | 51-10-15                 | 무기                        | 45년      | 51-10-15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백내장, 편두통          |
| 30 | 김선명      | 1925-2-20  | 76세 | 경기 양평         | 부산시 동래구 인락동                             | 52-01-00<br>무기[감형20]     | 20년                       | 72-04-00 | 부산시 동래구 인락동    | 척추디스크          |                   |
| 31 | 식용희      | 1925-4-8   | 76세 | 경남 양산         | 부인 장성실 떨-태정 태선, 0들 태영 태이                | 61-08-04<br>15년기학동시에 감호소 | 29년                       | 89-10-07 | 서울 봉천9동        | 위장질환           |                   |
| 32 | 김중종 (김탁) | 1926-4-2   | 75세 | 경북 안동         |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동                            | 59-07-03                 | 무기                        | 40년      | 98-03-13       | 경기 시흥          | 심장억함              |
| 33 | 윤용기      | 1926-8-2   | 75세 | 경기 강화         | 부인 체구현, 떨-종연, 이들-옹호                     |                          |                           |          |                |                |                   |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나이  | 본적 또는 출생지  |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소지     | 가족관계                      | 체포일자                               | 형량          | 복역 기간 | 석방일자     | 남쪽거주지          | 건강상태                       |
|----|-----|------------|-----|------------|--------------------|---------------------------|------------------------------------|-------------|-------|----------|----------------|----------------------------|
| 34 | 김인서 | 1926-11-18 | 75세 | 평남 덕천군 덕천  | 평남 덕천군 무릉리         | 부인 김정심, 여동생 김봉선           | 51-12-31                           | 2024년 6월 7일 | 34년   | 89-10-12 | 광주 '통일의 집'     | 뇌출증, 마비, 발음                |
| 35 | 최하종 | 1927-3-21  | 74세 | 함북 김책      | 평양시 외진구역 연희동       | 부인 김자숙, 아들 몽익·몽렬·몽태선      | 62-03-05                           | 무기          | 36년   | 98-03-13 | 서울시 봉천6동       | 신장질식증, 고혈압 등               |
| 36 | 이두근 | 1927-4-2   | 74세 | 충북 청주      |                    |                           | 52-05-01                           | 2024년 7월 4일 | 34년   | 89-08-07 | 서울 민중당제원       | 척추디스크증·고관절증                |
| 37 | 최선록 | 1928-7-17  | 73세 | 경기 강화      | 함흥시 중앙동 11번(성천구역)  | 부인 김서분, 딸·영애·영순           | 62-08-12                           | 무기          | 38년   | 99-02-25 | 대전 '형제의 집'     | 작동리 농촌 고관절증                |
| 38 | 홍명기 | 1929-4-5   | 72세 | 충남 부여      | 평양시 순안군 순안읍        | 부인 정순례(67세)               | 62-04-22                           | 무기          | 38년   | 99-02-25 | 서울 시설1동        | 관절염 등                      |
| 39 | 박원규 | 1929-4-10  | 72세 | 충북 청원      | 평양시 용정구역 용추동       | 부인·오마실·딸·춘일·춘자, 아들 명철·혁철  | 67-09-09                           | 무기          | 33년   | 99-02-25 |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   | 고혈압·만성기관지염                 |
| 40 | 안영기 | 1929-6-19  | 72세 | 경북 선산      |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흥2동 63번 | 부인 계용숙, 딸·난경·난희           | 62-08-12                           | 무기          | 38년   | 99-02-25 | 괴천 '한백의 집'     | 간장 등 혈액                    |
| 41 | 신광수 | 1929-6-27  | 72세 | 경남 양산      |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 부인 리원근, 딸 양숙·형숙·영란        | 85-02-26                           |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 15년   | 99-12-31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기관지 천식, 위장질환 등             |
| 42 | 조청순 | 1929-8-29  | 72세 | 횡성 장연      | 강원도 고성군 성북리 10번    | 부인·권순옥, 딸·금녀, 아들·정삼       | 62-04-04                           | 무기          | 30년   | 91-12-24 | 서울 '우리타운'      | 위장질환·폐결핵, 간기능 악화, 당뇨·관절염 등 |
| 43 | 우용각 | 1929-10-10 | 72세 | 평북 영변      | 평양시 동대원구 동대원리      | 어머니·오영숙, 부인·한성숙, 아들·인섭    | 58-07-12                           | 무기          | 42년   | 99-02-25 |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   | 골수암·투병 중                   |
| 44 | 신인영 | 1929-12-6  | 72세 | 전북 부안      | 평양시 순안군 순안읍        | 부인·리영화, 딸·은희, 아들·남철, 막내   | 67-03-09                           | 무기          | 32년   | 98-03-13 | 서울 '우리타운'      |                            |
| 45 | 손성모 | 1930-1-15  | 71세 | 전북 부안      | 평양시 대성구역 비파거리      | 부인·방희동, 아들·건, 남철, 혁철, 딸·숙 | 81-02-15                           | 무기          | 19년   | 99-12-31 |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 | 대장질환, 관절염                  |
| 46 | 김은환 | 1930-7-12  | 71세 | 경기 광주      | 평양시 협재산구역 하당동      | 부인 김보배, 아들·철수, 딸·금자·경심    | 69-09-08                           | 무기          | 31년   | 99-02-25 | 괴천 '한백의 집'     | 심장질환 등                     |
| 47 | 이경구 | 1930-3-4   | 71세 | 충남 공주      | 군생활 이동때문에 일정주소 없음  |                           | 52-11-07<br>[94. 1월 22년 7월 15년 추가] | 무기          | 38년   | 89-06-09 | 서울 당산동 4가      | 위장질환, 심장병, 기관지 확장          |
| 48 | 김익진 | 1930-7-13  | 71세 | 경북 영덕      | 강원도 원주시 갈미동        | 부인·한애자·별·경옥 치녀, 아들·철수     | 69-06-10                           | 무기          | 31년   | 99-02-25 |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   | 신장질식증, 다리 총상, 심장병          |
| 49 | 김영태 | 1930-7-23  | 71세 | 평북 정주군 옥천면 | 평북 정주군 옥천면 장경리     | 부인·김금옥, 아들·룡제             | 52-02-00<br>[기한 20년 + 15년]         | 무기          | 34년   | 89-10-00 | 광주 빛고을 탕제원     | 총상·심장병·인자, 오른쪽 시력기저        |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나이  | 본적 또는 출생지                | 가족과 함께 있었던 주소지             | 가족관계                                    | 체포일자               | 형량                     | 복역 기간    | 석방일자           | 남쪽거주지                 | 건강상태                 |
|----|-----|------------|-----|--------------------------|----------------------------|---|--------------------|------------------------|----------|----------------|-----------------------|----------------------|
| 50 | 양정호 | 1931-4-3   | 70세 | 경남 양산 험북 청진시 신암구역<br>호암동 | 부인-신기자, 이들-영<br>철 성철, 딸-혜경 | 69-06-16                                | 무기                 | 31년                    | 99-02-25 |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 | 신경파열 위장질환,<br>오른쪽 관절염 |                      |
| 51 | 김용수 | 1931-9-30  | 70세 | 경북 경주 지강도 강계시 석현동        | 부인-서종복, 딸-혜선,<br>형제, 조카    | 67-08-20                                | 15년+10년            | 27년                    | 93-06-28 | 대전 월평2동        | 관절염 통증                |                      |
| 52 | 송상준 | 1927-7-29  | 74세 | 부산 동래 부산 동래구낙민           | 없음                         | 54-04-01                                | 무기                 | 36년                    | 89-9-5   | 부산 연산8동        | 관절염, 위장질환             |                      |
| 53 | 함세환 | 1932-12-12 | 69세 | 경북 청해 읍진읍<br>도원리 함촌      | 누님-함숙녀, 조카                 | 53-06-02                                | 무기[20년감형]<br>+감호15 | 34년                    | 89-08-07 | 대전 '사랑의 집'     | 수수기무사'병등              |                      |
| 54 | 김동기 | 1932-10-19 | 69세 | 함남 단천                    | 부인-김은옥, 이들-철,<br>부모, 형제    | 66-05-18                                | 무기                 | 34년                    | 99-02-25 | 광주 '통일의 집'     | 총상후유증,<br>허리통증, 디리제에  |                      |
| 55 | 오형식 | 1932-4-5   | 69세 | 경기 시흥 강원도 원산시 부은리        | 부인-이금자, 이들-광<br>일 광우, 딸-은아 | 69-06-05                                | 무기                 | 31년                    | 99-02-25 | 서울 방이동         |                       |                      |
| 56 | 장병락 | 1934-7-25  | 67세 | 함남 고원                    | 강원도 고성군 성부리<br>10번         | 어머님-김동수, 부인-<br>이춘경, 이들-미성,<br>누이동생 장순녀 | 62-04-04           | 무기                     | 38년      | 99-02-25       | 서울 '갈현동 만남의 집'        | 고혈압, 폐결핵,<br>소화계통질환  |
| 57 | 김창원 | 1934-10-27 | 67세 | 서울                       | 평양시 동대원<br>동신1동 23번        | 부인-김복희, 이들-성<br>식 성남, 딸-성희 성숙           | 69-06-12           | 무기                     | 31년      | 99-02-25       | 대구 '민들레집'             | 정질환, 담석통증,<br>총상후유증  |
| 58 | 이공순 | 1934-12-3  | 67세 | 충남 서천                    | 함남 합흥시 성천구역<br>동은동 580     | 부인-김덕희, 딸-춘애<br>춘여 춘복, 이들-호             | 67-12-10           | 무기                     | 33년      | 99-02-25       | 광주 '통일의 집'            | 위장질환                 |
| 59 | 김영달 | 1934-3-18  | 67세 | 경북 영덕                    | 군생활 이동때문에<br>일정주소 없음       | 부모-김중의 최옥순,<br>형-김성달(흑룡강성 허<br>얼련 기주)   | 58-03-13           | 15년+<br>감호15년          | 30년      | 89-10-05       | 전북 부안                 |                      |
| 60 | 리경천 | 1935-11-15 | 66세 | 개성 장릉                    | 개성시 장릉군 월고리                | 부친-이석동, 부인-박<br>명무, 딸-명실 육실             | 65-08-12           | 무기                     | 35년      | 99-02-25       | 광주 '통일의 집'            | 당뇨(300-400),<br>신장질환 |
| 61 | 고광인 | 1935-1-5   | 66세 | 전북 고창                    | 전북 고창군 신림면<br>가평리 644번지    | 가족없음                                    | 56-07-12           | 무기[4.19때20년]<br>+감호14년 | 34년      | 89-09-06       | 전북 고창                 | 요통등<br>위장질환          |
| 62 | 최수일 | 1939-5-25  | 62세 | 평북 의주                    | 강원도 통천군 치국리                | 부인-백농녀(임신 5개월),<br>어마니-김홍옥,<br>형님-최천국   | 65-03-05           | 무기                     | 35년      | 99-02-25       | 대전 '형제의 집'            | 오랜ago<br>후유증         |
| 63 | 이재웅 | 1944-10-2  | 57세 | 강원 양양                    | 평남 속청군 청동리 17번             | 형님-이재현                                  | 70-06-19           | 무기                     | 30년      | 99-02-25       | 광주 '통일의 집'            |                      |



#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



신국판 / 340페이지 / 8,500원

김선명씨를 비롯, 신인영씨(32년 수감), 김석형씨(31년 ), 조창손씨(30년 ), 홍경선씨(31년 ), 이종환씨(43년 ), 이종씨(23년 ). 7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에 굵은 선을 남겨준 사건들이며, 인생에서 가장 눈이 부신 나이를 감옥에 묻어두면서, 고문과 배고픔과 싸우면서 끝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술회하고 있다.

0.75평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은 방에서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계적인 양심수 문제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의와 이해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시인 고은 선생이 머리말에서 '기약할 수 없는 세월 저쪽에서 이쪽까지의 잔인한 시간을 거의 초인간적으로 살아낸 그이들은 생명이기보다 암석쪽 '이라고 할 만큼 그들의 감옥생활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넘고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극한 상황을 이겨낸 그들에게서 순수함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그 우직한 정도로 순수한 면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을 것이다.

수형생활 중이나 출옥 이후에도 마음 따뜻한 남녘 사람들을 만난 과정을 감동적으로 술회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들었던 이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남북간에 하루빨리 자유왕래가 이루어져 다시 만나고픈 마음을 담고 있다.

각기 출신지와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현대사에서 북쪽을 선택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연좌제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비** 전향장기수 7인의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부제: 비전향장기수 7인의 유예된 삶)가 2000년 8월 28일《도서출판 창》에서 출간되었다.

이번에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 중 45년 세계 최장기수

그리고 이제는 남쪽에 고향을 두고, 가족을 두고 북으로 가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 통일 과정에서 휴전선보다 더 견고한 사상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속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은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비전향장기수 모두가 바라는 것은 다시는 민족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며 평화적인 조국의 통일이다. 남한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그들은 북으로 가서도 민족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문에 실린 내용

- 1장 김선명, 총각 할아버지의 소망 / 2장 신인영, 시인이 되고 싶었던 혁명가 / 3장 김석형, 초대받지 않은 손님 / 4장 조창손, 통일의 물꼬를 트는 따뜻한 가슴 / 5장 홍경선, 바위처럼 굳센 청년 / 6장 이종환, 43년만의 출옥 / 7장 이종, 독방의 시인

○ 우리 카페에 놀러 오세요!

민가협양심수후원회(<http://cafe.daum.net/mingahyup/>) 카페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북으로 돌아가신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훌러 계절은 바뀌어 가는군요.

이 카페에는 이런저런 허전한 마음을 같이 메우고, 서로에게 힘 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회원들이 모여 있답니다. 후원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한메일(hanmail)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운영자 아이디 : [mingahyup@hanmail.net](mailto:mingahyup@hanmail.net)

연락처 : 016-235-3726(송창학)

## 박정훈 선생의 석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 국정원에 연행되어 구속된 박정훈 선생의 부인입니다.

남편은 개학을 이틀 앞둔 23일 집에서 국정원 수사관 9명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1시간 넘게 가택수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연행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저에게 남편을 왜 데려가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택수색을 받을 당시 저희 집에는 편찮으신 시아버님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현장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남편을 연행했을 때 저희 가족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사람을 왜 잡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서울공대를 졸업한 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일념 하나고 사범대에 편입하여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과목이 지구과학이라 바로 학교로 갈 수 없었을 때에도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열망 하나로 지난 세월을 산 순수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언론에 의하면 입시학원에서도 재수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것으로 허위보도가 되었으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96년도에 서울시내 명문고로 재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남편의 모습은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편은 수업시간에 가르칠 내용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분필을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학생들 교재도 자신이 직접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3개 학년의 수업 내용을 모두 컴퓨터화 하다보니 지금까지 일요일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모습으로 날조되었고,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학교에 침투한 계획적인 사람으로 국정원은 위조하였습니다. 교사라면 당

연히 고민하여야 할 청소년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학생들과 함께 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 또한 철저한 민혁당 당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국정원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많은 부분은 내용이 좋아서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 또한 민혁당의 하부 조직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홀륭한 교사의 꿈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한 것이 모두 북한의 사주를 받은 행동으로 조작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국정원 수사관들은 저희 집에서 엄청난 양의 전교자료, 다수의 컴퓨터 봉디스크, 아이들 게임CD, 심지어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촌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담긴 편지, 촌지를 건네주려다 거부 당해 죄송하다는 글을 쓴 학부모 편지까지 가져가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내는 보고문이 나왔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 수능시험 78일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교로 다시 돌아와 수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정원에서도 반 아이들에게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고3 학생들은 수능 준비 잘하라고 전달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편찮으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착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 둘이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최진수씨, 한용진씨, 박종석씨 또한 이 땅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이 사회가 아끼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광화문에는 광복 55주년 기념 “분단을 뛰어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라는 대형 선전물이 붙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모처럼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때에 제발 더 이상의 말도 안되는 용공조작은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유영순 님은 후원회의 오랜 회원으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남편 박정훈 선생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01** 해명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 찾아뵙고 송환과 관련 말씀 나누다.
- 통일부 관계자에 전화, 한종호 선생님 송환의지 전달, 정순택 정순덕 선생님 조사에서 배제문제 조사 촉구.
- 02**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법무부와 통일부에 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이전 비전향으로 출소한 사람과 1989년 사회안전법 폐기된 뒤 청주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학근 씨와 7명에 대한 거소지 등 행정자료 공개요청서 발송
-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취재진과 비전향장기수 송환관련 인터뷰(권오현)
-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위암투병을 하고 있는 전양배(한총련 대의원) 학생 어머님 문병
- 김정길 법무부 장관, 8·15 광복절에 3만여명 사면, 복권 할것이라고 발표
- 03** 당국에 전양배 학생 형집행정지 강력요청.
- 민가협 340회 목요집회. '새 천년 8.15를 맞아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는 주제로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사경을 헤매는 지 애미 곁으로 양배가 돌아올 날만 기다립니다"(한총련 대의원 전양배 학생의 아버지 전창운 님), "우리 늦둥이 아들, 이번에는 꼭 나오겠지요"(한총련 5기 의장 강위원 학생 어머니 이순례 님),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구속사건(한림대 총학생회장 박지원씨의 어머니 발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자 진재영(전남대) 어머니가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낭송, "석치순을 비롯한 노동계 양심수는 일터로 돌아와야 합니다"(김대훈 공공연맹 대외협력부장)
- 광주 통일의 집에 계신 김동기 선생님이 쓰신 <새는 앓는 곳마다 깃털을 남긴다> 출간
- 04** 전양배 학생, 홍성교도소에서 24시간 형집행정지 조치로 서울대 병원 어머님 찾아뵙. 민가협 어미님들과 병원에서 마중
- 05** 동아일보 시사주간지 취재팀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관련 인터뷰(권오현)
- 서울대 병원으로 전양배 어머니 문병, 관계당국에 전양배 학생 형집행정지 연장요청
- 06** 전양배 어머니, 새벽 서산집으로 퇴원. 전양배 학생 오후 교도소에 재수감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통일축전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총학생회장 박요섭, 문과대 학생회장 오대일 등 한총련 대의원 4명을 용산경찰서에서 강제 불법연행, 새벽에 용산 경찰서에 항의 방문
- 07**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촉구' 기자회견(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 단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 연행과 관련, 임기란 정연오 권오현 대표와 가족들, 경찰청 방문, 엄중항의하고 즉각 석방 촉구
- 08** 6·15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와 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 제4차 운영위(향린교회)
- 양심수후원회 간병팀 매오로시 봉천동 일대에 계신 선생님들 초청, 저녁대접. 이종 선생님 89회 생신 축하잔치. 이정태 변의숙 이승미 송창학 주경임 송경임 성효진 김현애 양계숙 회원등
- 2000년 통일대축전 이종린 공동준비위원장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신공안단압 중단 촉구
- 09**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반미토론회' (평통사, 자통협 주관 2000년 통일축전 주최, 홍사단 강당) 김승국 강정구 발제, 민경우 정대연 노중선 이종희 토론, 문규현 신부 사회
- 10** 민가협 341회 목요집회. '새천년 8.15를 맞아 125명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는 주제로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3년이 넘도록 수배생활하는 아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날을 기다립니다"(97년 이석 치사사건으로 수배중인 최원식 학생 어머니 강영숙 님), 서울대 법대 학생들의 퍼포먼스 "양심수에게 자유를", "제 남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면복권이 되어야 합니다"(임성종 씨 부인 정은희 씨), 한총련대의원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난 사례(한현선 건국대 문과대 학생회장), 국가보안법 혐의(한총련 대의원)로 구속된 사례(단국대 학생회장 어머니), "국가보안법,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인권유린으로 충분합니다"(권오현 민가협공동의장). 집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 까지 행진,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명동성당농성단 진재영 발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위원장 발언, 김

봉구 서울대 법대 학생 발언으로 맷음.

※ '미군학살만행 진상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국제 조사단 함께 만찬(전국연합 사무실)

※ 양심수후원회 12차년도 3차 운영위(이기욱 부회장 사무실), 여름수련회, 비전향장기수송환준비위 등 논의, 진관스님(감사) 석방 환영을 위한 감사 운영 위원 함께 식사

※ <후원회소식> 106호 발송.

11 ※ 중앙방송(케이블방송) 김기평의 토크 앤 토크 "북 송 비전향장기수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출연, 권 오현 상임대표, 김동기 선생님 대담

※ 2000년 통일대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조국통일 과제' (통일축전 준비위 주최/ 홍사단 강당). 김남식 선생 발제, 이장희 고영대 한 호석 이승환 최규엽 정대연 민경우 권오현 토론 경찰, 매향리 국제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2000년 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학생 등 45명을 무더기 강제연행, 용인 경찰서 등에 분산 조사

12 ※ 매향리 국제사격장 폐쇄 촉구 시위 도중 학생 연행과 관련, 이종린 김규철 노수희 권오현 경찰청 방문, 엄중항의 즉각 석방 촉구

※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창립 14주년 기념식(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 통일부, 정부당국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가 제출한 대상자 전원 송환촉구

※ 2000년 서울지역 통일축전시민한마당(여의도 금성무대)

13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기자회견(한양대 학생회관)

※ '6·15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 자주·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개막식 및 통일선봉대 환영식(한양대 대운동장). 2만여명 참석

14 ※ '미군의 만행 진상규명과 국제전범 재판소 제소를 위한 피해자 증언 청취대회' (한양대 학생회관 앞, 전민특위 남측본부, 국제조사단 참여)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 주최, 비전향장기수 환송식(한양대 운동장) 노동자 청년학생 등 4만여명 참석.

※ '6·15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 자주·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 본행사

15 ※ 정부는 양심수 강현기씨 등 20명에 대한 형집행정

지와 강위원 등 9명에 대한 감형, 우용각 등 비전향장기수 집행면제, 김창현 등 복권, 1101명에 대하여 석방, 감형, 사면, 복권 조치를 비롯 3만 647명에 대한 광복절 사면 단행

※ 대전교도소(정수일), 군산교도소(나호영 정태홍) 석방 마중, 경주(강위원), 대구(정명기), 홍성(정의찬) 등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 면회. 장재영 이정태 이승미 변의숙 신현의 김숙희 송창학 등 회원이 함께 다녀옴.

16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긴급 대표자회의(세실 레스토랑). 정부가 아직도 송환절차 조사를 미루고 있는 정순택 정순덕 선생 문제와 가족들 동반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18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17 ※ 8·15 양심수 사면과 관련, 영남위원회 사건 가족들과 함께 민주당사 방문. 유선호 인권위원장 만나 간경화를 앓고 있는 박경순씨가 제외되는 등 광복절 사면조치에 항의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 민가협 342회 목요집회. 정략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8.15사면 규탄한다는 주제로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정명기를 비롯한 미석방자를 전원 석방하라!(한총련 4기 의장 정명기 학생 아버지 정연오 님), 간경화 환자 박경순을 석방하라!(부산연합 이정이 의장), 김현칠은 특별사면까지 하면서 내 아들은 왜 못나옵니까!(홍익대생 장창준씨 어머니 윤달님), 냉전의 잔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이천재 전국연합 공동의장), 8.15 특사로 풀려난 황선, 김호, 정태홍, 이준구, 방석수씨 석방인사.

※ 정부는 박재규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비전향장기수 62명을 송환할 것을 확정하고 북에 통보하기로

※ 이두균 선생님(74세·민중탕제원) 송환의사 표명, 통일부에 명단 추가통보

18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향린교회에서 송환희망자 정순택 정순덕 선생님 제외된 점, 신인영 선생님 93세된 노모 모시고 가는 문제 등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두분의 송환과 가족들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

※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초청, 비전향장기수 환송식 및 환송연(성공회대성당)

※ 기독교방송 시사자키에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 권오현 추진위 상임대표와 송환희망자 신인영 선생

## 생방송 인터뷰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장충식 총재이름으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62명 송환대상자 명단 통보

- 19**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0년 여름수련회 첫날, 1박2일동안 충북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 '좋은사람들의 모꼬지' 분교터에서 열리다. 민가협 어머니들과 후원회원, 송환희망 장기수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과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다. 민가협 서경순 회원 사회로 개막식을 열어 인사말(임기란 회장)을 듣고 일정발표, 수련회 생활수칙을 선언하고 나서 최광기씨의 사회로 비전향장기수 환송식 행사를 갖다. 이어 운동장에 모여 '조국통일' 불글씨와 모닥불을 중심으로 마당놀이로 뜻깊은 밤을 보냄.

- 20** 수련회 이틀째. 아침체조와 산책으로 하루를 열고 강당에서 조별겨루기, 인권 퀴즈잔치, 공동체놀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촌극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면서 수련회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 21** 62명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상자 기자회견. 송환대상에서 제외된 정순덕·정순택 선생님의 송환촉구(향린교회).

조선국립교향악단,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 합동공연(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2** 송환희망자 1명 추가, 송환대상자 모두 63명으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빠른 국회개원 촉구하는 유가협 기자회견 열림(국회의사당 앞).

불교장기수후원회, 송환 비전향장기수 초청하여 환송 다과회 가짐(실천불교승가대포교당)

- 23** 임병호 선생님(혜명양로원) 방문인사. 후원회에서 마련한 순금명패 선물 드리고 환송식 일정 알려드림. 홍전영, 나명주회원 동행.

김호현 운영위원이 낙성대 만남의집, 우리탕제원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환송만찬을 하면서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방 하나> (도서출판 창) 출판 인사말과 함께 책에 수록된 선생님들께 사진기를 선물로 드림. 음시통감시통 회원들과 매으로시 회원들이 함께 하다.

- 24** 민가협 343회 목요집회.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고문, 불법행위 등 국정원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태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

의로 국정원에 체포,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송환될 비전향장기수 신인영 선생님 등 7명의 인사, 민혁당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구속수사 받고 있는 최진수 사례(민족무에 경당사범). 8월20일 국정원으로 연행. 연행 당시 권총의 위협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강제 알몸수색 당함)를 최진수 씨 어머니 발표,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으로 연행되었다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사례(안현선 전국대 문과대회장).

법무부,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인권법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며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25** 불광1동에 사시는 한춘익 선생님 방문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천명

경실련 통일협회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6.2%가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발표.

국가정보원,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진수, 박정훈씨를 구속수사

송환대상, 비전향장기수 적십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

**26** 범민련 남측본부 주관, 비전향장기수 송환 환송오찬 모임(광화문 식당).

비전향장기수 범국민 환송문화제 '눈부신 가슴 그대로 통일의 아침을 밝히소서' (비전향장기수 범국민 환송준비위원회 주최, 송환추진위 주관, 한겨례신문, 민화협, SBS 노동조합, i TV 경인방송 후원/연세대 대강당). 3천여명 함께한 가운데 1부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대표의 인사말, 박용길(민화협 대표) 임기란(민가협) 오종렬(전국연합)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단병호(민주노총) 문규현(사제단) 성관(불교) 이희철(한총련)의 송사와 김중종 선생님의 답사로 이어졌고 2부는 최광기 사회로 서울지역 대학생 율동, 조국과 청춘, 희망새, 청소년 단체, 소리타래, 아름나라, 아줌마노래단, 이옥순님의 편지낭송, 민가협 어머니들의 합창, 꽂다지 등의 노래공연과 63분 선생님 소개와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선물증정과 최하종 선생의 감사의 말씀에 이어 우리의 소원 합창으로 마친다.

우리탕제원 조창손 선생님이 급성폐렴 중세로 사당 의원에 입원, 모성룡 회원이 애쓰다.

27 ■ 비전향장기수 선생님의 후원활동을 해왔던 한빛교회, 향린교회에서 각기 초청, 환송예배와 오찬을 가짐.

■ 낙성대 만남의 집을 6년여에 걸쳐 후원해주신 동대문 감리교회 목사님과 성도 30여명이 만남의 집에 음식을 차려 석별의 정을 나누다.

■ 통일부, 적십자사가 송환장기수 선생님들에게 9월 1일,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으로 집결할 것을 통보.

28 ■ 민혁당 관련 협의로 국정원에 강제연행, 부당수사와 관련, 민혁당 대책위 회의를 갖고 29일 기자회견 열기로(향린교회).

■ 양심수 85명에게 영치금(2만원) 발송.

■ 박경순 등 5명의 양심수에게 월간〈말〉 발송

■ 사당의원 조창순 선생 문병. 고열로 기력이 떨어진 상태. 통일부에 선생님 상태 알리고 앰뷸런스로 9월 2일 가겠다고 통보.

■ 양심수후원회에 큰 성원을 해주셨던 박선생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1C 청소년 공동체 희망, 청년연설회의와 소위 민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대책위원회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안탄압 권총위협 알몸수색 국정원 책임자 처벌등을 주장.

■ 한준의 선생님(불광동), 임병호(혜명양로원)선생님 찾아뵙고 양심수후원회 등에서 마련한 선물을 갖다 드리고 9월 1일, 집결지 등을 알려드림. 김규철 감사 함께함.

■ 사당의원에 악성폐렴으로 입원치료중이신 조창순 선생님께서 김종구 원장과 김지영 원장(후원회 부회장)과 상의한 뒤 국립의료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되다. 두분 원장님의 구급차로 함께 가 입원절차를 마치고 608호실에 입원.

30 ■ 민가협 제4회 인권강좌. "국가인권위원회"(조용환 변호사)

■ 국립의료원으로 조창순 선생님 문병. 열은 조금 내렸고 식사는 아직 못하고 계심.

■ 비전향장기수송환 관련 YTN 보도팀과 권오현 회장 인터뷰.

31 ■ 민가협 344회 목요집회. 여는말씀(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민혁당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한용진(청년연설회의공동대표). 8월20일 국정원으로 연행되어 알몸수색과 성기검사 등의 불

법 수사를 당함) 사례를 부인 황정주 씨 발표, 박정훈(이화외고 교사. 8월23일 국정원으로 연행) 사례를 동생 박소현씨 발표, 박종석(우리말우리글살리는 모임 회장. 8월27일 연행되어 수서경찰서에서 알몸수색 당함) 사례를 동생 박종오씨 발표, 고령의 환자인 남편 한단석교수를 풀어주세요!(부인 강정애님)

■ (비전향장기수 백서) 출판기념예배(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감리교 아현교회).

■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영남위 구속자 박경순 님 가족에게 드리다.

### 9월 실행

가을이 오고 있네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그리워집니다. 조창순, 류한욱 선생님들은 건강을 회복하셨는지, 모두 가족들을 만나셨는지, 김선명 이종환 선생이랑 가족없는 분들 혹여 외롭지 않은지… 아마 지금쯤이면 선생님들도 우리랑 함께 하고 했던 산행을 떠올리시겠지요… 가을 북한산에서, 선생님들과 고왔던 기억들을 함께 꺼내어 가을물을 들여봅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겠다는 약속도 하고요!

언제 : 2000년 9월 24일 오전 10시

만나는 곳 : 평창동 북악파크 앞

가는 곳 : 북한산

• 이달은 소식지가 늦게 발간되었습니다. 혹, 24일 이후에 소식지를 받아보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더 빨리 찾아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할께요!

### 사회원을 활영합니다

신동필(경기도 의왕시)

우형익(안산시 와동)

우형봉(서울시 암사2동)

### 축하합니다

• 오랫동안 소식지 발송 일을 도맡다시피 해온 허유정 회원이 후원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인연 이건영 회원과 혼례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월 7일 오후 2시 악현성당(서부역 바로옆)

• 달마다 회원들을 찾아가는 <후원회소식>을 이쁘게 꾸며 주고 있는 여혜정 회원(디자인 꿀과얼)이 윤병로 님과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월 22일 오후 1시 남산골 한옥마을